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57-1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2년 연구보고서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기초 연구

2023. 4.

http://kostat.go.kr/sri

ISSN 2288-1166(Print)
ISSN 2733-4120(Online)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2022-11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기초 연구

우한수 · 남상민 · 신인철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혁명시대에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내의 유일한「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2022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2022년 연구보고서」는 비확률표본을 위한 통계적 추론, 최신 차분정보보호 방법론 탐색과 통계 활용 방안 연구 등「국가통계 방법론」연구, 장애인 안전지표 데이터 가용성 연구 등「정책통계」관련 연구,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등「경제통계」관련 연구,「2050 탄소중립」관련 SDGs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등「SDGs 지표」관련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통계개발원이 전년에 국가통계 개선·개발을 위해 수행한 연구과제로서 국가통계 생산자의 통계개발 및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23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송준혁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3
제3절 추진 방법 ····· 5

제2장 선행연구 및 청년통계 현황 검토 ····· 7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 7
제2절 청년 통계 현황 검토 ····· 21

제3장 청년 FGI 및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 27
제1절 청년 FGI 결과 ····· 27
제2절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 45

제4장 프레임워크 구축 ····· 58
제1절 프레임워크 구성 ····· 58
제2절 지표체계 구성 ····· 65
제3절 지표체계 구축 방안 ····· 6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69

참고문헌 ····· 72
부 록 ····· 74
Abstract ····· 95

요 약

청년정책을 고용 중심에서 벗어나 소득·주거·관계·참여 등 청년층 삶의 질 전반의 향상으로 바라보려는 사회적·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청년층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청년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최근 청년 관련 주요 정책과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활용하였다. 또한 청년의 직접적 목소리를 듣고자 다양한 배경을 지닌 24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는 차원-영역-지표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청년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사회·환경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년의 기본적 삶의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활동 속에서의 청년의 모습을, 환경적 차원에서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 여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레임워크는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여건', '교육', '일자리', '건강'의 4개 영역, 사회적 차원에서 '의식·가치관', '관계·참여', '여가'의 3개 영역, 환경적 차원에서 '안전', '주거 환경'의 2개 영역, 그리고 청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주관적 웰빙' 영역과 청년의 전반적 인구 통계 현황을 보여주는 '배경 지표'를 포함하여 11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11개 영역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세부 지표 모습을 보여주고자 총 62개의 예시 지표들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 청년, 삶의 질, 청년정책, 지표, 프레임워크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를 전후하여 국민 삶의 질, 행복, 웰빙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기구나 국가 통계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질 지표 작성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70년대부터 서유럽 선진국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 지표 중심의 GDP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 행복, 웰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9년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발전의 측정에 있어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 또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작성을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삶의 질 지표 작성과 연구 단계를 넘어서 뉴질랜드의 행복 예산(wellbing budget) 등과 같이 이를 국가 예산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대되고 있다. 삶의 질 지표 작성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을 것이다.

한편 시의성과 효과성 높은 정책 지표의 작성 및 활용을 위해서는 인구 집단 등 정책 대상의 세분화와 관심 영역(이슈)의 고려가 필요하다(변준석 외, 2019). 통계개발원에서 작성 중인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1년 개발되어 전체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특정 집단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통계개발원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2018), 고령자 삶의 질(2019) 등 인구 집단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취약 집단을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 삶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김문길 외, 2021).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의 2016년 보고서는, 25개국에서 최근 10년간 실질가계소득 감소 및

정체 가구가 70%에 이르며, 청년이 이러한 소득 정체·감소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이 시대의 청년들을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규정하였다. OECD(2016) 또한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청년세대의 고용·소득·빈곤·건강·가족구성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성인들에 비해 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과 소수의 질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제도 속에 편입하기 위해 스펙 쌓기 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등에 그 현실은 이른바 헬조선이라 불릴 만하다. 청년 노동시장의 경우, 양질의 대기업 노동시장에는 대기 실업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하는 등 이중구조화가 나타나, 일자리와 임금 모두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플래폼 노동, 긱 이코노미[1]로 불리는 노동자성을 잃은 불안정한 지위의 임시직 일자리 형태가 확장되어 청년 고용의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내에 불평등(학력·성별·지역별 등)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소득, 주거, 건강, 여가 등 여러 부분에 순차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불리한 조건하의 출발은 이후 생애과정 전반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이른바 상흔 효과(scar effect)를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문길 외, 2019).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청년기본법」제정을 통해 과거 고용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교육, 소득, 주거,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청년기본법을 통해 국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최종심의·의결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여러 청년정책들이 종합적인 청년정책체계에 편입되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020년 12월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수립되고 청년층 삶의 질 파악을 위한 '청년 삶 실태조사(2022)'가 실시되는 등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청년정책 시행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다만, 청년층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기본법과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청년층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지속 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 학계·연구기관에서도 청년층 삶의 질 실태와 측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별 연구들이거나 청년정책의 개편 및 시사점에 관한 일회성 연구들로 청년층 삶의 질 현황을 보여주는 청년층 삶 지표가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다차원

1)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뜻의 긱(gig)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필요에 따라 일을 맡기고 구하는 경제 형태를 의미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단기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적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 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삶의 질은 어떤 상태이며 다른 인구집단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청년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및 요인이 무엇인가?” 셋째, “최근 청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 시사점과 국내외 청년층 삶의 질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또한 청년의 직접적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 초점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시행하고 프레임워크 초안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요도 평가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청년층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청년정책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청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향후 청년층 삶의 질 지표체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청년층 삶의 질 지표체계는 청년층 삶의 질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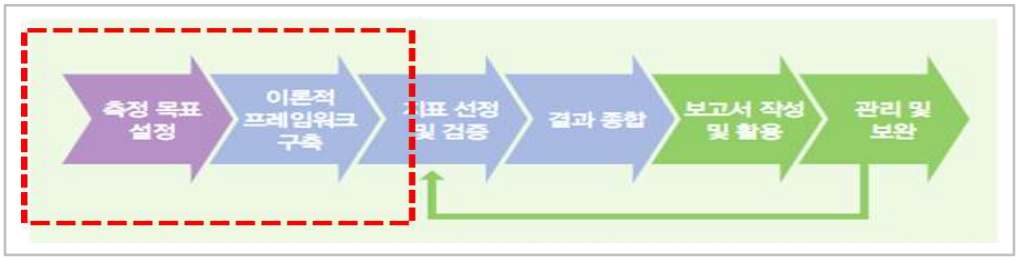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청년층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토대로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청년층 삶의 질 지표체계 작성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청년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다른 인구집단과의 차이점은 있는지, 최근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청년은 일자리 이행, 주거 이행, 가족 이행 등 이행의 관점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이질적인 삶의 질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이를 규정하는 연령대가 광범위하다는 연구 대상 설정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 기간과 인력의 제약을 감안하여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연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과제의 범위를 명료화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을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process of transition)에서 이해하고 결혼(동거)과 관련된 가족 이행의 측면은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청년의 사회학적 정의에 따르면, 청년은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복합적인 이행 과정에 있는, 학업을 마치고 고용 시장에 진입하고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다(Billari, 2004). Fahmy(2006)에 따르면, 청년은 ‘직업’ 이행(학교에서 일자리로), ‘주거’ 이행(부모의 집에서 나의 집으로), ‘가족’ 이행(원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의 3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세대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행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용 시장의 진입, 일자리를 얻는 것이며 이는 이후 생애 전 과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청년에게 있어 결혼(동거)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 자녀의 출산, 자녀의 양육 등은 생애주기상 이후의 삶의 경로를 좌우하는 결정적 사건(milestone)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독립, 가족 형성에 따른 청년층 삶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는 것은 삶의 질 측면에서 여러 이질적인 집단을 포함해야 하는 방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기간과 수행 연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는 일자리와 독립 이행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가족 이행은 제외하여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가족 이행과 관련한 청년층 삶의 질은 저출산 지표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추후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청년의 연령 범위를 만 19세~34세로 한정하였다. 이는 2020년 제정된「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연령 인구 범위 기준에 따른 결과이다.「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지자체별 조례에서는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 대상에 맞게 청년연령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범위는 최대 만 15세~39세였다. 한편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연령 인구는 만 15세~29세로 청년실업률 작성의 기준이 된다. 청년에 대한 정책지원, 통계 작성 등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인구·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청년 범위(만 19세~34세)는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따라,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역할 측면을 감안했으며, 이는 청년의 직업과 독립 이행에 관점에서도 합당한 연령대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의 영역별 구성 및 측정 대상이 무엇인지, 각각의 하위 영역별 세부지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청년 지표 생산과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 등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지표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한 지표 선정 및 검증을 위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변준석 외, 2019). 이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기간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프레임워크 구축과 세부 하위 영역에 포함될 세부 지표 및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프레임워크와 통계자료의 시계열 분석 및 검증을 통한 지표체계 구축 과정은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범위는 <그림 1-1>에서 제시하는 지표 작성의 6단계 중 붉은 색 점선으로 표시된 측정 목표 설정과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의 2단계까지로 청년층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영역 및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및 활용 가능한 통계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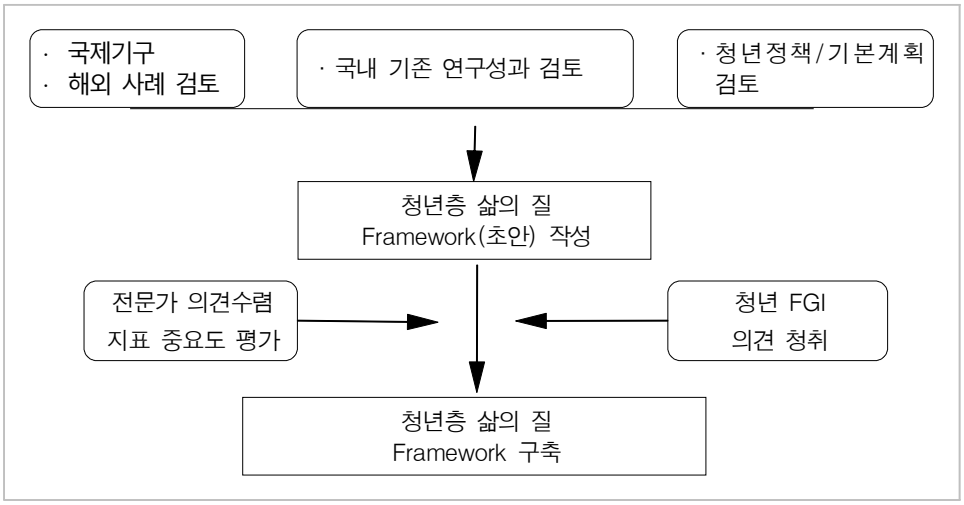


출처: 변준석 외, 2019, 지표작성방법론, 통계개발원.

<그림 3-1> 지표작성의 6단계

제3절 추진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청년층 삶의 질 관련 문헌검토 및 정부의 청년정책/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청년 FGI를 통해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하였다. 본 과제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청년층 삶의 질 지표 관련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사회학과 교수 1명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지표 및 프레임워크 작성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만큼, 국내외 기존 연구 성과, 연구 동향, 작성 사례 위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청정부의 청년정책이 고용 중심에서 청년층 삶의 전반적 향상으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체계는 고정된 영역·지표 틀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인구·사회·경제 분야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개인·집단의 견해, 중요도 인식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프레임워크 작성 시 관계부처·전문가·청년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 보건사회연구원 등 청년층 삶의 질 지표 작성 관련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공동연구진과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을 지속하였다. 또한 청년층 삶의 질 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다양한 배경을 지닌 24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였다. 연구 추진 방법의 전반적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 1-2>와 같다.


· 국제기구
· 해외 사례 검토
· 국내 기존 연구성과 검토
· 청년정책/기본계획 검토
청년층 삶의 질 Framework(초안) 작성
전문가 의견수렴 지표 중요도 평가
청년 FGI 의견 청취
청년층 삶의 질 Framework 구축

<그림 1-2> 연구 추진 방법

제 2 장

선행 연구 및 청년통계 현황 검토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1. 국외 동향

OECD는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청년이라고 판단, 청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의 청년실행전략을 청년권고안으로 제정 중에 있다(2021.12). OECD는 코로나19로 청년들은 높은 실업, 교육 및 일터에 기반한 학습 중단, 재정·주거 불안정 및 정신적 고통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 간 불평등 확대,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 및 민주적 절차 참여 저하 등 부정적정기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청년권고안 초안은 고용 중심의 청년실행전략(2013)에서 고용·교육·사회 정책 등 정책 영역을 포함하고, 청년의 정부신뢰 강화, 공공 및 정치 생활에서의 청년 참여와 대표성을 촉진하며, 정책지원 강화 등 청년층 삶을 둘러싼 모든 영역에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지식 습득, 적절한 직업 능력 및 역량 개발 지원, 청년의 노동시장으로의 및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 지원, 취약·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통해 사회포용과 청년의 경제적 성과 이상의 웰빙 증진, 청년층의 정부 신뢰와 공공기관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행정적 기반 수립 등이다. 한편, 권고안 초안에서는 청년기(Youth)를 유년기(childhood)에서 성인기(adulthood)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15-29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별 결과를 비교하고 연령대에 따른 데이터 수집의 표준화를 돕기 위함으로 그 범위는 해당 주제와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청년의 연령을 기존 24세에서 29세로 넓힌 것은 최근 청년들의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결혼과 부모가 되는 연령이 높아진 사회경제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도 청년연령을 24세에서 29세로 변경하였고(2020), UN은 청년의 연령은 2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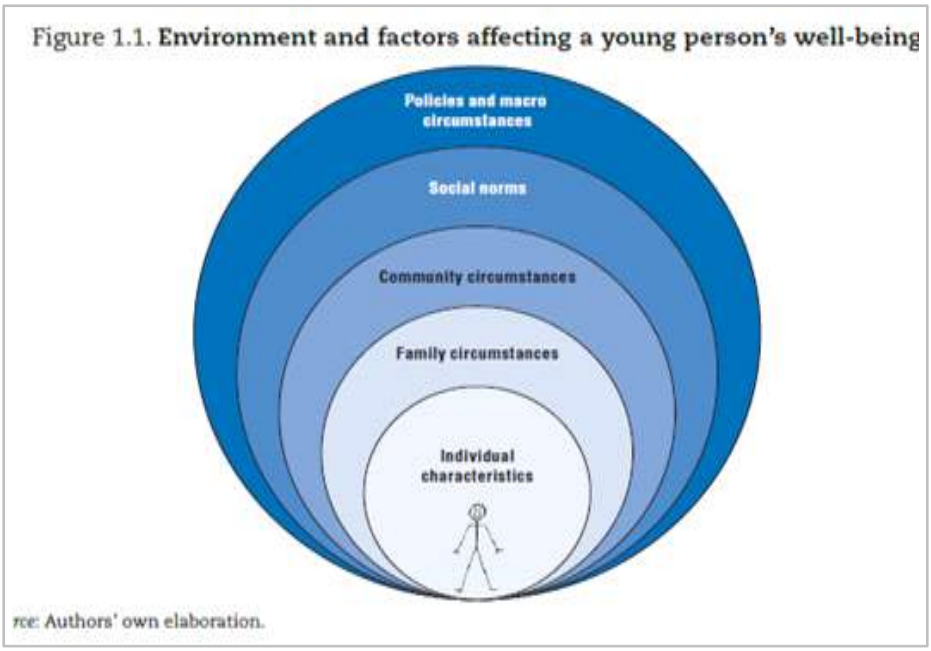
UN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참여를 목표로 Youth2030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Youth2030의 주요 영역은 참여와 지지, 지식과 건강한 삶의 기반, 양질의 일자

리를 통한 경제적 능력, 인간적 권리, 평화와 회복의 5가지 분야이다. UN의 Youth2030 전략은 SDGs 체계와 연계하여 청년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 삶의 질 지표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적 연구 및 자료는 미흡하며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년층 삶에 대한 독립적 연구보다는 child-youth 체계 안에서 일부 청년의 삶을 일부 다루는 경향이 강했다.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를 다룬 주요 지표는 OECD Youth Wellbing, Youth Progress Index(YPI), Global Youth Wellbing Index가 대표적이다.

가. OECD Youth Well-bing Index

OECD Youth Wellbing index는 청년 개인을 둘러싼 요인과 환경의 관점의 시각에서 청년층 삶의 질을 조명한다(<그림 2-1>). 청년 개인은 가족과 지역 사회 커뮤니티, 사회 규범, 정책과 거시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존재라는 것이다(<그림 2-1>).



출처: OECD Youth Wellbing(OECD, 2017)

<그림 2-1> OECD Youth Wellbing 결정 요인

해당 지표에서는 청년층 삶의 질을 건강, 교육과 역량, 고용, 시민참여와 권한 부여, 삶에 대한 평가·감정·의미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5개 영역은 각 영역 파악을 위한 지표를 가지며 총 43개 지표로 구성된다. 건강 영역은 사망률과 질병률,

알콜, 담배 소비 등의 세부지표를 가지며, 교육과 역량은 고등교육 이수율, 중퇴율 지표를, 고용은 NEET, 고용상태, 비공식취업률 지표를, 시민참여와 권한 부여는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삶의 대한 평가·감정·의미 영역은 삶의 만족도를 주요 지표로 포함한다. 한편 OECD Youth Wellbing은 분석대상인 youth를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연령대인 15~24세로 설정(UN 기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5개 영역 중 소득, 주거 등 주로 성인기에 이행되는 경제적 부문은 포함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표 2-1> OECD Youth Well-bing Index 영역 및 세부 지표

영역(5)	주요 지표(43)
건강	사망률, 질병률, 알콜, 담배 소비 등
교육과 역량	고등교육 이수율, 중퇴율 등
고용	NEET, 고용상태, 비공식 취업률 등
시민참여와 권한 부여	사회적 자본, 신뢰 등
삶에 대한 평가 · 감정 · 의미	삶의 만족도 등

출처: OECD Youth Wellbing(OECD, 2017)

나. Youth Progress Index (YPI)

Youth Progress Index(YPI)는 비영리단체인 유럽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에 의해 2018년 처음 공표된 지표로 150여 개 국가들의 청년층 삶의 질을 측정,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층 삶의 질 영역 관련 국가별 순위를 1위~150위까지 발표하여 청년 웰빙 증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YPI는 청년을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있는 개인으로 정의하며 청년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맥락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다.

YPI는 Social Progress Index(SPI) 지표를 기반으로 하며 SPI 지표 중 하위 인구 그룹인 청년층 삶의 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한다. YPI 지표체계는 3개 차원(Basic Human Needs, Foundations of Wellbing, Opportunity)의 12개 영역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2-2>). 기초적인 필요(Basic Human Needs) 차원은 영양과 기초 의료, 물과 위생시설, 거처, 안전 영역으로 구성되며, 웰빙의 기초 차원(Foundations of Wellbing)은 기초 지식으로의 접근, 사회로의 연결망, 건강, 환경의 질로 구성되며, 기회(Opportunity) 차원은 개인적 권리, 자유와 선택, 포괄성(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등 교육에의 접근으로 구성된다.

YPI 지표는 전 세계 150여 개 국가들의 청년층 삶의 질의 전반적 수준을 비교, 측정하기에 보다 적합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YPI 지표는 경제 수준에 따른 개별 국가들의 청년층 삶의 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3가지 차원과 GDP와의 국가별 비교를 통해 경제 성장과 삶의 질과의 상관 관계를 도출하는 등 청년층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YPI 지표는 우리나라 청년층 삶의 수준에 다소 맞지 않는 지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기회 차원의 청년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청년층 삶의 질 지표 작성 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순위는 24위로 청년층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라 생각된다.

<표 2-2> Youth Progress Index 영역 및 세부 지표

★ **Basic Human Needs**	
Nutrition and Basic Medical Care	Undernourishment (% of pop.)
	Maternal mortality rate
	Child mortality rate
	Child stunting (% of children)
	Youth deaths from infectious diseases
Water and sanitation	Unsafe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attributable deaths
	Populations using unsafe or unimproved water sources
	Populations using unsafe or unimproved sanitation
	Youth satisfaction with water
Shelter	Access to electricity (% of pop.)
	Youth household air pollution attributable deaths
	Usage of clean fuels and technology for cooking (% of pop.)
	Youth affordable housing
Personal Safety	Homicide rate
	Perceived criminality
	Youth traffic deaths
	Women safe walking alone
	Assaulted youth
	Youth stolen money or property
★ **Foundations of Wellbeing**	
Access to Basic Knowledge	Women with no schooling
	Primary scholl enrollment (% of children)
	Secondary school attainment (% of population)
	Gender parity in secondary attainment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obile telephone subscriptions (subscriptions/100 people)
	Internet users (% of pop.)
	Access to online governance
	Media censorship
Health and Wellness	Youth life expectancy (years)
	Youth premature deaths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Access to quality healthcare
Enviromental Quality	Youth outdoor air pollution attributable deaths
	Particulate matter
	Youth satisfaction with air quality
	Species Protection Index

★Opportunity	
Personal Rights	Political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religion
	Access to justice
	Property rights for women
	Percent of young members of parliament
Personal Freedom and Choice	Early marriage (% of women)
	Satisfied demand for contraception (% of women)
	Corruption
	Youth freedom over life choices
	Youth perception of corruption
	Youth not in employment and not in education
Inclusiveness	Openness towards gay and lesbian peopl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minorities
	Equality of political power by gender
	Youth opportunities to make friends
	Youth openness towards immigrants
	Youth community safety net
Access to advanced education	Years of tertiary schooling
	Women with advanced education (%)
	Quality weighted universities (points)
	Citable documents

출처: Youth Progress Index(2021) / * 청년 관련 지표는 주황색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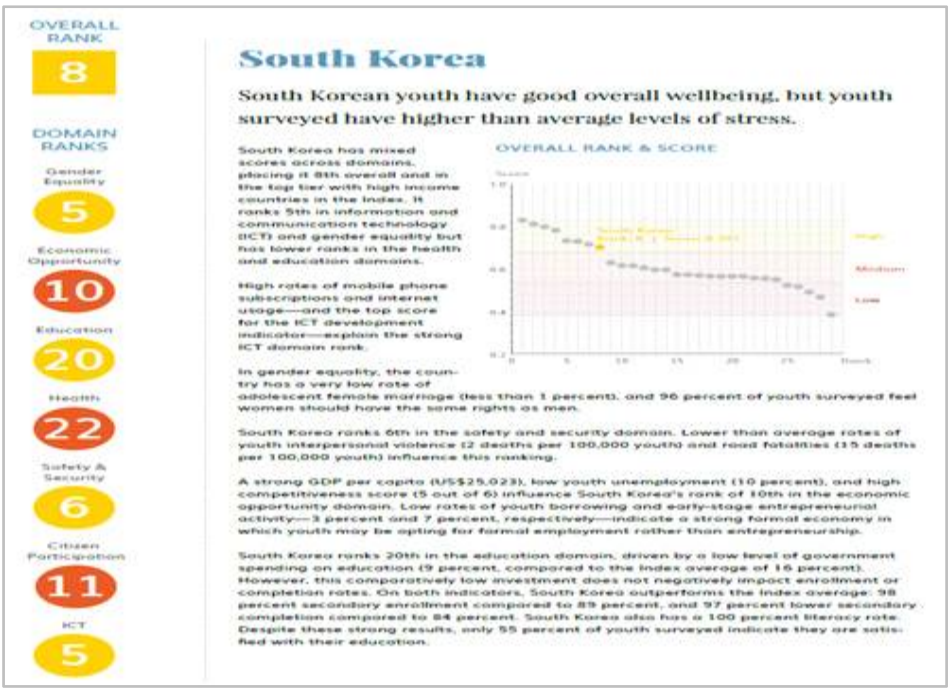
다. Global Youth Well-bing Index (IYF, 2017)

Global Youth Wellbing Index 2017은 비영리단체인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IYF)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주요 30여 개국의 청년 웰빙 측정 및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Global Youth Wellbing Index는 IYF가 범주화한 7개 영역 3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성 평등, 경제적 기회, 교육, 건강, 안전, 시민참여, ICT로 구성되어 있다. 총 지표 점수는 35개 지표의 합계 점수로 개산되며, 35개 각 지표들의 가중치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청년 웰빙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2017 기준 우리나라의 순위는 8위를 기록했다(<그림 2-2>).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좋은 웰빙 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Global Youth Wellbing Index 2017지표는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과 지표들은 SDGs 지표와 구조적으로 연결된 지표 구성을 하고 있다. GYWI는 지표 평균을 통해 국가별 비교에 주 목적이 있으나, 지표 체계 구성 시 SDGs와의 연계, 자료와 지표 정의서의 명확성 등 향후 우리나라 청년층 삶의 질 지표 체계 구축 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3> Global Youth Well-bing Index 영역 및 세부 지표

영역	세부지표
GENDER EQUALITY	Restricted civil liberties for women
	Female early marriage rate
	Women's fear of walking alone
	Youth perceptions of gender quality
ECONOMIC OPPORTUNITY	GDP per capita
	Global competitiveness
	Youth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s)
	Youth unemployment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Youth borrowing
	Youth expectations for future standard of living
EDUCATION	Youth literacy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Lower secondary enrollment
	Lower secondary completion
	Youth satisfaction with education
HEALTH	Adolescent fertility rate
	Youth self-harm fatalities
	Youth stress
	Youth perceptions of health
	Youth tobacco use
SAFETY & SECURITY	Youth road fatalities
	Internal peace
	Youth interpersonal violence
	Human trafficking
	Youth perceptions of violence
CITIZEN PARTICIPATION	Democracy
	Youth volunteering
	Youth policy
	Age for office
	Youth perceptions of government
ICT	ICT development
	Youth internet access at home
	Internet usage
	Mobile phone subscriptions

출처: Global Youth Well-bing Index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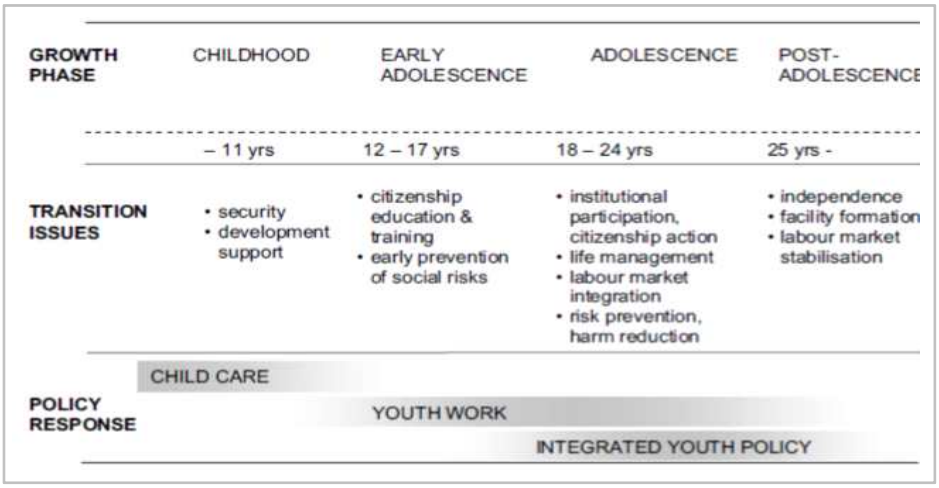


출처: Global Youth Well-bing Index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2017)

<그림 2-2> 한국의 Global Youth Well-bing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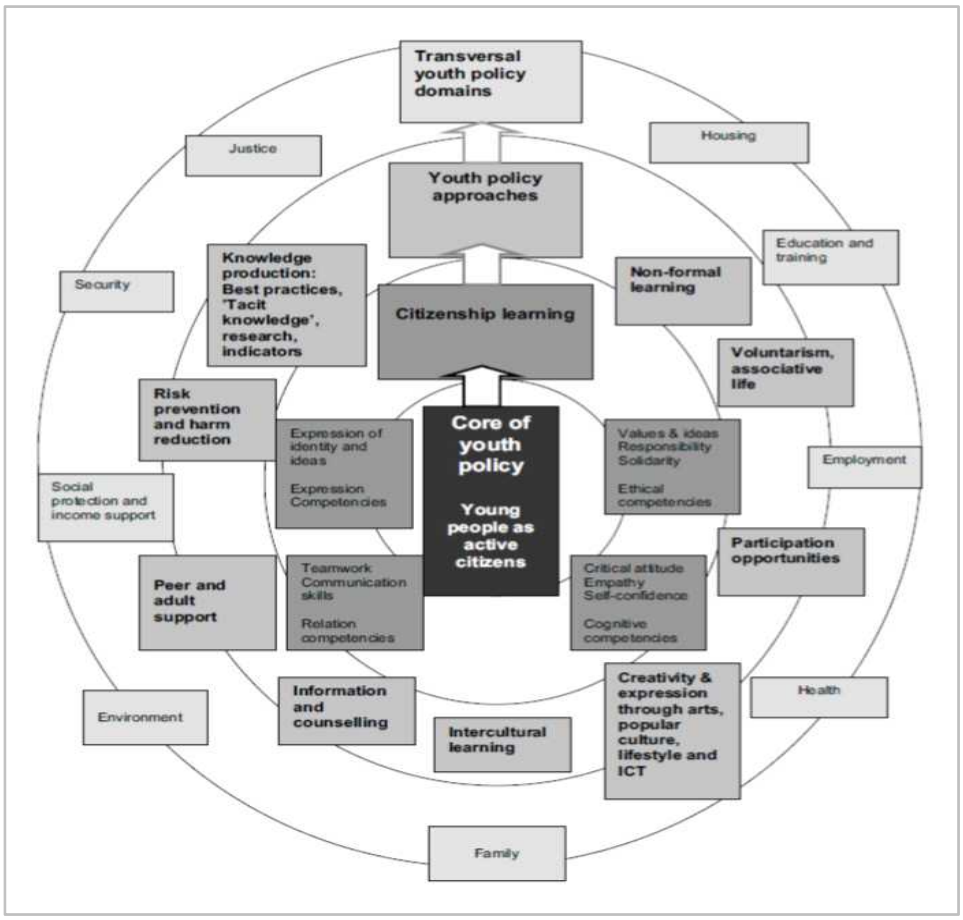
라. A European framework for youth policy

유럽의회는 청년정책을 위한 프레임워크 작성을 통해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효과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청년을 가정하며, 시민 교육을 통한 청년정책 접근과 다양한 영역의 청년층 삶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 교육은 정부 부문(선거, 공공 정책 결정), 시민 사회(NGOs, 비영리단체 활동 등), 개인 영역(직장에서의 민주주의, 노동조합, 참여)로 구분될 수 있다. 청년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동기(11세 이전), 초기 청소년(12-17세), 청소년기(18-24세), 후기 청소년기(25세 이상)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르는 주요 이슈와 이에 적합한 정책 대응을 주문한다(<그림 2-3>). 청년은 교육, 고용, 건강, 기타의 영역에서 서로 영향을 받으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청년정책은 이러한 생애주기상의 과정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청년층 삶에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은 주거, 교육과 훈련, 고용, 건강, 가족, 환경, 사회적 보호 및 소득 지원, 안전, 정의 등 10개 부문으로 이루어진다(<그림 2-4>).



출처: A European framework for youth policy

<그림 2-3> 청년의 이행과 정책 대응(A European framework for youth policy)



출처: A European framework for youth policy

<그림 2-4> 청년정책의 핵심 도표(A European framework for youth policy)

2. 국내 동향

청년 관련 국내 연구는 얼마 전까지 아동·청소년 연구의 일정 부문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을 비롯한 청년문제의 심각성 대두로 청년 대상의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청년정책을 고용 중심에서 일자리, 소득, 주거, 여가, 관계, 참여를 아우르는 청년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2020년 12월 발표되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관련 국조실 전담 부서 설치 등 청년정책의 적극적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청년의 전반적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22년 제1차 청년 삶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 및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청년정책 시행과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다만, 청년정책을 넘어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청년층 삶의 질 연구는 청년 빈곤의 시각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변금선(서울연구원, 2019) 등은 청년문제의 기초를 이루는 고용, 주거 등 청년의 다차원 빈곤을 주목하고 경제, 교육과 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관계·문화, 복지 등 7개 영역 17개 지표를 통해 청년층 삶의 질을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한 청년기본법(2020.2), 청년층 삶의 질 개선방안(20.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12) 등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청년정책과 청년 관련 주요 이슈, 관심 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이우러진 청년의 다차원 빈곤 등 청년층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영역 및 지표 구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 밖에 청년층 삶의 질 관련 개별 연구결과들을 간단히 검토하여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및 지표 체계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청년기본법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1) 청년기본법(2020)

청년 문제를 고용의 관점에서 벗어난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5월 여야 합의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에 있어 획기적 변화를 가져다 준 법

률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정부의 청년발전을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발전”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년정책의 범위가 ‘청년층 삶’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기존 청년을 독립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은 일자리 위주의「청년고용촉진특별법」등 극히 일부 법률에 불과했다.「청년기본법」은 청년 문제를 일자리 차원을 넘어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의 5대 영역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청년의 연령 기준(만 19~34세)을 정하고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기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년발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청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청년정책의 수립은 청년의 수혜적 지원이 아닌 청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된다. 셋째,「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전 부처적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에 따라, 청년정책 컨르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청년정책 시행 및 성과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 삶의 질 실태의 종합적 파악을 위해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함(동법 11조)으로써 증거 기반 청년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4>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지원과 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해당 법률에 근거한 청년정책 또한 기본 정책의 일부 변용이라는 비판, 실효성 문제, 선거 연령 하향(18세)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의 재정의 등 추진상의 문제점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 청년층 삶의 질 개선방안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층 삶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정책이 청년실업 대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여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다는 인식하에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우선, 청년정책의 범위를 일자리 위주에서 ‘청

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여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참여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범위를 넓히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17년 대비 '20년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은 76개, 9.7조 원에서 182개, 22.3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청년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19.7),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셋째, 청년정책 마련 시 청년의 직접적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참여단(100여 명), 온라인 청년패널(1000여 명)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 청년소통을 실시하고 청년제안을 정책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의 제안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토하여 정책화한 것으로 5개 분야 34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종합적 로드맵과 실행계획은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및 각 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청년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법 제8조),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계획('21~'25)을 수립하였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확정을 거쳐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적용 대상은 만 19세~34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타 법령·조례에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적용 대상을 규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의 경우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탈피,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정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다차원적 욕구를 지닌 청년층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 점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 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였다. 기본계획은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 하는 선제적 사회투자 관점을 기반으로 아래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지닌다. 첫째, 청년참여·주도 활성화와 보편적 정책 확대로 안정적 이행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전체 청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탐색(교육)→진입(취업)→안착(결혼·독립) 등의 이행기를 안정적으로 통과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극복과 중장기 투자의 정책 조합으로 시의성·지속성을 갖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중장기 국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와 청년정책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일자리분야(148개)·주거분야(27개)·교육분

야(107개)·복지/문화분야(54개)·참여/권리분야(40개)의 5대 영역 376개('22년 기준) 세부과제를 통해 추진된다. 한편, 2022년 5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여 희망, 공정, 참여 기조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5대 영역을 희망 차원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 공정, 참여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였다(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처: 제7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국무조정실, 22.10)

<그림 2-5>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 전략 요약

2. 국내 작성 사례 및 연구동향

국내에서 청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지표 체계는 아직 없다. 국내의 청년층의 삶의 질 관련 개별 연구는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한석민(2016)은 사회자본(이웃 관계, 소속감, 단체참여) 변수를 사용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광은(2021)은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불평등에 미치는 인식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정부의 청년정책하에 청년층 삶의 질 관련 여러 용역 과제들이 국책연구기관들을 통해 수행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2019)은 빈곤, 여성, 지역 이동, 가족 형성 자원에서 청년빈곤실태, 청년층 내 성별 특성, 청년층 지역 이동 결정요인, 고용과 청년의 초혼 이행 등을 분석하여 청년층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과 영향을 고찰하였다. 한구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은 경제, 교육,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청년 빈곤실태를 측정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자립 안전망 등 청년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연구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2021)에서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삶에 대한 전반적 실태 파악 및 정책 제언을 하였다. 변금선과 김기헌(2019)은 1988~1998년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경제, 교육·노동, 건강, 사회관계, 시민참여,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청년층 삶의 실태와 다중격차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오세일(2019)은 청년층 삶에 있어 개인의 내적 역량, 외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행복 지표 작성을 위해 자아정체성, 사회적 관계, 영성 측면을 고찰하였다.

한편, 변금선(2021)은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청년 빈곤을 청년층의 삶을 고려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성인 초기 사회적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차원적 자원과 기회가 결핍, 박탈, 배제된 상태'로 정의하고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등 7개 영역 17개 빈곤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이현주(2014)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금융 등 5개 영역 9개 빈곤지표를, 김문길(2017)은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등 6개 영역 19개 빈곤지표를 구성하였다.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 주거, 교육, 고용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상대적 빈곤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체계 구성 시 이러한 박탈의 관점에서 청년층의 삶을 조망하는 것은 시의성과 적합성을 가진 방향이라고 하겠다. 청년층 삶의 질 관련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청년 빈곤지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청년 다차원 빈곤지표

전통적으로 빈곤은 아동, 노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청년빈곤은 한부모 청년이나 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 취약집단에 한정되거나,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불황과 4차 혁명의 진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교육, 주거, 건강, 문화 등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변금선, 2019). 이에 청년층의 삶을 다차원적 빈곤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의 일자리·주거 등 불평등 구조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도 일맥상통한다(김승연, 2020).

다차원적 빈곤 파악을 위한 영역 및 지표체계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제와 교육 주거 건강을 중심으로 한다는 주요 공통점이 있다. 다차원적 빈곤 및 관련 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5> 주요 다차원적 빈곤 및 지표 구성 연구

연구자	영역 구성	영역 세부 내용
이현주 외(2014)	5개 영역 9개 지표	주거: 주거소유상태, 주거비용부담, 주거생활박탈
		교육: 교육비 지출 부담
		의료: 의료비 지출 부담, 의료박탈
		고용: 경제활동 참여상태, 근로능력
		금융: 금융 신용불량
김문길 외(2017)	6개 영역 19개 지표	경제력: 가처분소득, 순자산
		주거: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기준, 주거설비, 시설
		건강: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 우울, 의료비부담
		고용: 실업, 근로지속가능성, 근로시간형태
		사회문화적자본: 사회적 친밀 관계, 여가, 문화지출
		안정성: 공적연금, 고용보험, 물질적 박탈
김경혜 외(2010)	6개 영역 14개 지표	소득: 균등화 가구소득
		자산: 순자산
		고용·노동: 실업, 비정규직, 산재/고용보험 가입
		주거: 최저주거기준, 비정상거처 기준, RIR
		건강: 주관적 건강, 결식 또는 영향 불균형, 의료비
		교육: 진학, 사교육투자, 소득대비 교육비 비중
변금선(2021)	7개 영역 19개 지표	경제: 소득·빈곤, 순자산 빈곤, 부채부담
		교육·역량: 니트(NEET), 자율성
		노동: 실업, 고용안정
		주거: 비적정주거, 최저주거기준
		건강: 자살생각, 우울, 미충족 의료
		사회적 자본: 사회적 고립, 사회적 관계망
		복지(웰빙): 식생활결핍, 주관적 행복, 미래전망

출처: 변금선(2021) 재구성

제2절 청년 통계 현황 검토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청년층의 삶의 여건에 대한 통계를 망라하고 정부의 주요 청년정책 성과 등을 집대성한 '2021 청년정책백서'를 발간했다. '2021 청년정책백서'는 청년의 삶을 생애주기적 관점(교육-노동-가정형성)에서 정리하고 일자리·주거·복지 등 부문별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청년정책의 역사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청년정책의 내용과 성과 등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청년기본법」 제정,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 등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30개 핵심사업의 현황 및 성과, 향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

청년 관련 조사통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와 청년층을 포함하는 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통계 또는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패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등이 있으며, 청년층을 포괄하는 주요 통계로는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등이 있다. 그 외 지정(승인)통계 외, 청년층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청년패널 등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청년을 포괄하는 조사가 있다. 주요 자료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6> 청년층 관련 주요 지정(승인) 통계

구분	조사명	분야	작성기관	승인연도
청년층 대상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사회일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청년패널	노동	한국고용정보연구원	2007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노동	한국고용정보원	2006
	청년 삶 실태조사	일반	보건사회연구원	2022
청년층 포괄	사회조사	사회일반	통계청	1977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일반	한국행정연구원	2013
	한국복지패널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복지	보건복지부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통계청	1962
	한국노동패널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1998
	근로환경조사	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주거실태조사	주거	국토교통부	2006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	질병관리청	2008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	질병관리청	1973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07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1991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소비·자산	통계청	2006
	가계동향조사	소득·소비·자산	통계청	1962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 연구(정세정 외, 2019) 자료 재구성

한편, 통계청에서는 서베이조사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관계 기관의 행정자료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청년 통계에서도 각종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여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려는 시도를 늘려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계청 행정통계과의 '청년층 행정통계'와 행정자료관리과의 청년통계등록부를 들 수 있다. 청년통계는 기존 중장년층 행정통계에서 청년층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중이며, 청년통계등록부 또한 관계 기관의 청년 관련 행정DB를 연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 공표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자료이며 실제 공표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청년 통계와 청년통계등록부 작성 지표(안)은 아래와 같다.

<표 2-7> 청년 통계 지표 구성(안): 중장년층 행정통계 공표 기준

구분	항목
인구·가구	(시도별) 인구·가구원수, 세대구성유형, 인구의 국내이동
주택	거처유형 및 주거면적, 주택소유 현황, 소유주택의 주택자산별 가액
일자리	등록취업자수 및 종사상지위, 종사상지위별 주된 일자리 특성
일자리변동	등록취업 여부/종사상지위 변동 현황, 신규등록 일자리 현황, 미취업자의 종전 일자리 현황, 개인기업체의 창업자 현황, 개인기업체 창업자 현황
소득·부채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권 대출잔액 현황
연금·사회보험	연금가입자 현황(성별/연령별/취업 여부/주택소유별)

출처: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통계청, 2022)

<표 2-8> 청년 통계등록부 항목 구성(안)

구분	항목
인구	기준연도, 개인대체번호, 성별, 만연령, 혼인상태, 부모동거 여부
가구	행정구역 구분코드, 가구주 개인대체번호, 가구유형
주택	거처주택 면적, 거처주택 건축연도, 거처형태, 주택소유 여부
다문화	다문화, 국적(한국, 한국 외)
장애인	장애 여부
취업활동	기업체고유번호, 종사상지위, 근속기간, 근로·사업소득, 기업체 산업분류, 기업규모, 기업체 종사자수
아동가구	육아휴직 여부, 육아휴직 사용시작일·종료일
고용정보원 훈련자료	훈련기관지역, 훈련시작일자, 훈련종료일자, 훈련직종코드, 훈련과정구분코드, 훈련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훈련기관 사업장명, 훈련기관구분, (전체)직업훈련횟수
양육	양육자녀수, 한부모 여부
맞벌이	맞벌이 여부

출처: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보도자료(통계청, 2022)

1.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만 18~34세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7년 조사 기준 영역 및 항목은 인구와 가족(16개), 교육과 훈련(32개), 경제와 고용(73개), 주거(19개), 건강(14개), 가치관(3개), 관계 및 참여(12개), 배경(19개)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7년에는 니트, 2018년에는 신규졸업(예정)자, 2019년에는

<표 2-9> 지역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요 조사 항목

영역	세부 지표	
응답자 기본 사항(5)	(1) 성별	(2) 생년월일
	(3) 혼인상태	(4) 교육정도
	(5) 거주시점	
주거와 교통 (5)	(6) 전입 직전 거주지 및 전입 온 이유	(7) 주거여건 만족도
	(8) 정주의사	(9) 청년 주거 관련 필요한 정책
	(10)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가족 (3)	(11) 1인 가구 여부	(12) 결혼관
	(13) 출산 · 육아 대책	
교육 (3)	(14) 학생 고민	(15)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16) 교육정책사업	
건강 (4)	(17) 건강평가	(18) 스트레스 정도
	(19)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여부	(20) 청년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
문화와 여가 (8)	(21) 문화·여가 참여 여부 및 만족도	(22) 문화·여가 생활 만족도
	(23) 문화·여가 생활지역	(24) 문화·여가 공공시설 이용 및 만족도
	(25) 동호회활동	(26) 활동하고 싶은 동호회 여부 및 동호회 활동
	(27) 지역축제 참여 여부	(28) 지역축제 만족도
	(29) 문화·여가활동 필요한 정책	
삶의 질 (3)	(30)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 요건	(31) 삶의 질 중요도
	(32) 지역 분야별 만족도	
노동 (16)	(33) 지난 1주간 활동상태	(34) 산업
	(35) 직업	(36) 종사상 지위
	(37) 직장의 재직기간	(38) 일과 전공과의 관계
	(39) 직장(일)에 대한 만족도	(40) 취업자의 이직 및 전직의사
	(41) 취업자의 전직·이직 희망이유	(42) 일을 그만 둔 경험여부 및 그만 둔 사유
	(43) 미취업 기간 및 활동	(44) 미취업자의 구직경험
	(45)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이유	(46) 정부 취업관련 프로그램 도움 정도
	(47) (미취업자) 일자리 희망 여부 및 이유	
희망 일자리(3)	(48) 희망 일자리 유형	(49) 희망 일자리 지역 및 이유
	(50) 희망 연평균 소득수준	
취업 지원 정책(2)	(51) 일자리 정책 인지도 및 인지경로	(52)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정책

출처: 지역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보도자료(통계청, 2019)

청년참여, 2020년에는 청년 주거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했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한편, 통계청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매뉴얼에 대한 표준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2019). 기본사항, 주거와 교통, 가족,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삶의 질, 노동, 희망일자리, 취업지원정책, 지자체 특성 항목의 11개 조사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 항목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년 패널

청년 패널 조사는 만 15~29세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노동시장 경로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구축되었다. 청년 패널은 한국고용정보원(고용통계조사팀)과 고용노동부(미래고용분석과)가 1년 주기로 약 1만 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학교생활, 경제활동상태(취업자, 미취업자), 경험일자리, 시험준비/직업훈련/자격증/직장체험프로그램, 사교육/취업사교육/해외연수, 진로지도/예상진로/진로발달/구직동기, 가구배경, 기타의 8개 영역, 약 1,8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0> 청년 패널 주요 조사 항목

영역	주요 조사항목
학교 생활	과거 및 현재 학교상태, 만족도, 희망 최종학력, 성적, 전과 및 복수전공, 재학 중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휴학,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상태	- 취업자: 지난 조사 당시와의 동일직장 여부, 현재 일자리에 대한 구직활동 및 입직경로, 현재 일자리 정보, 노동조합 가입 여부, 이직준비, 동시일자리 등 - 미취업자: 미취업상태, 구직활동
시험준비/직업훈련/자격증/직장체험프로그램	시험준비, 직업훈련, 자격증, 직장체험훈련
사교육/취업사교육/해외연수	사교육, 취업사교육, 해외연수
진로지도/예상진로/진로발달/구직동기	진로지도, 예상진로, 진로발달, 구직동기
가구배경	가구배경
기타	기타(청년실업대책, 장애, 시간활용, 부모와의 교류, 인상적 경험, 건강과 스트레스)

출처: 통계청

3.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전전년도 8월 및 전년도 2월 전문대, 일반 4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이동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교육-노동시장 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 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도모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보원이 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18,000명에 대한 횡단면 조사만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경제활동상태 판별, 현재 일자리, 구직 활동, 비경제활동 인구상태에 대한 잠재실업 관련 내용, 첫 일자리 이행에 관한 실태, 경험 일자리, 학교생활, 졸업 후 진학 경험, 재학 중 경험 일자리, 어학연수 경험 및 외국어 시험, 졸업 전 취업목표,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취득 자격증, 시험 준비, 취업 준비 및 기타 사항, 청년고용대책, 신체 및 정신건강, 인적사항, 소득 및 지출 등 19개 항목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20b).

4. 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다양한 청년층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포괄적인 청년층 삶의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는 대규모 횡단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청년 삶 실태조사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2022년 첫 조사를 시행하였다. 영역과 조사항목은 2022년 5월 기준,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영역, 관계 및 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8개 영역 377개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청년 삶의 질 실태 조사는 기존 청년층 대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계 및 시행되었다. 청년 패널과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조사 목적이 노동시장 이행 관련 정보 수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영역별 종합적 실태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년패널조사의 목표모집단은 15~29세 청년층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을 대표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대졸자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영역별 삶의 실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크기가 3,500명으로 다양한 청년층의 삶을 살펴보기에는 충분히 크지 못하고 일부 영역의 경우에는 가구 단위의 정보가 부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 대상은 만 19~34세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와 만19~34세 가구원이며, 표본 가구수는 15,000가구이며 조사 주기는 2년이다.

<표 2-11>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 항목

영역	주요 조사항목(377)
일반사항(26)	성별, 연령, 학력 등 조사대상 청년과 가구 일반특성
주거(75)	부모 동거 여부, 주거비, 주거환경, 주거인식 등
건강(42)	건강행태, 정신건강, 의료이용, 건강결과 등
교육·훈련(24)	학교생활, 비진학 사유, 취업·시험준비 등
노동영역(76)	주된 일자리 특성, 이직 의향, 근로환경 경험 등
관계 및 참여(36)	참여 경험, 만족도, 제약 경험, 참여 의사, 여가 실태와 필요성의 격차 등
사회인식·미래설계(46)	삶의 만족도, 행복, 사회갈등, 계층 인식, 미래 실현 조건 등
경제(52)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지출, 부채 및 재산 등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보도자료(국무조정실, 2022.07)

제 3 장

청년 FGI 및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제1절 청년 FGI 결과

1. 면접조사 개요

가. 면접조사 목적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청년층 삶의 질 프레임워크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Hanafin과 Brooks(2005)는 청소년 지표체계 구성을 위한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의 중요 요인과 맥락을 이해한 바 있다.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조병구 외, 2018; 유민상 외, 2019)에서도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요인 분석에 있어 설문조사(FG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청년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에서는 청년들의 삶과 행복에 대한 다차원적 시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면접 방법

본 초점집단인터뷰(FGI)는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 인터뷰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본 면접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 연령인 만19세~34세 청년 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집 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성별(남/여), 취업상태(학생/취업준비 중/취업) 등 세부 집단별 변수를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면접조사는 2022년 7월 중 통계개발원 영상회의실에서 담당 사무관 주도로 실시되었다. 청년 모집 방식은 통계개발원 알림마당, 청년네트워크 및 대학생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 공개 모집 방식을 선택했다. 공개 모집 방식은 다양한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해당 연구 주제 이해도 및 낯선 면접 환경으로

인해 실제 면접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통계개발원에서는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마인드맵(mind-map), 인생곡선과 사전 설문지를 이용하여 청년의 적극적 의사표현을 유도하였다. 첫째, 마인드맵(mind-map)을 통해, 면접 참여자들이 과거와 미래의 자신의 삶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행복요인)',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불행요인)'이 무엇인지를 단어, 문장, 그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마인드맵 작성은 본 면접 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인생곡선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의 정도를 시간의 흐름과 주요 사건을 통해 나타내도록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지표에 대해 청년층(또는 본인) 삶 지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지표와 제외하여야 할 지표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사전설문지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표에 대한 대략적 이해 및 본 면접조사의 방향성을 부각시켰다. 마인드맵(mind-map), 인생곡선, 사전설문지는 본 면접조사 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본 면접 수행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면접조사 진행 시 본인 동의를 사전에 획득한 후 진행하였으며, 원격 면접 시 참여자가 원할 경우 카메라를 끄도록 하고, 가명을 사용토록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참여자들은 마인드맵, 인생곡선, 사전설문지 등 작성본 및 본 면접 녹화분에 대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면접조사 참여자

본 면접조사의 참여자는 총 24명으로, 2~4명 단위로 구분된 총 8개 그룹으로 실시되었다. 학업, 취업준비, 취업 등 청년의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과 주말 낮 시간을 이용하여 2시간 내외(1회)의 원격 면접을 진행하였고, 참여의 대가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참여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3-1> 인터뷰 구성 및 일정 현황

일정	성명	출생연도	성별	지역	경제활동상태	그룹명
7.18(월)	A1	1993	남	비수도권	학생	사전-test
	A2	2000	여	비수도권	학생	
7.19(화)	A3	1998	남	비수도권	학생	사전-test
7.21(목) 오전	A4	2003	여	수도권	학생	1그룹
	A5	1995	남	수도권	취업준비 중	
	A6	1996	여	비수도권	취업준비 중	
	A7	1993	여	수도권	취업준비 중	
7.21(목) 오후	A8	1998	여	비수도권	취업준비 중	2그룹
	A9	1991	여	수도권	취업준비 중	
	A10	1995	여	비수도권	취업준비 중	
	A11	1996	여	수도권	학생	

일정	성명	출생연도	성별	지역	경제활동상태	그룹명
7.23(토) 오전	A12	1997	여	비수도권	취업	3그룹
	A13	1996	여	수도권	학생	
	A14	1994	여	수도권	취업	
	A15	1991	여	수도권	취업	
7.23(토) 오후	A16	1999	여	비수도권	취업	4그룹
	A17	1994	여	비수도권	취업	
	A18	1989	여	비수도권	취업	
7.25(월)	A19	2003	여	수도권	학생	5그룹
	A20	2000	남	수도권	학생	
	A21	1994	여	수도권	취업	
	A22	1993	여	수도권	취업	
7.28(목)	A23	1995	남	수도권	취업	6그룹
	A24	1995	남	수도권	취업준비 중	

<표 3-2> 인터뷰 참여자 구성

특성		학생	취업준비생	취업
수도권(14)	남(4)	1	2	1
	여(10)	4	2	4
비수도권(10)	남(2)	2	-	-
	여(8)	1	3	4
소계(24)		8	7	9

라. 면접조사의 주요 질문 및 진행절차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연구에서 청년의 직접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나, 청년의 목소리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과정과 형식은 그리 명확한 것이 아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시간 내외의 면접시간(1회) 및 원격 인터뷰 등으로 인해 진행 과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사전에 제공된 마인드맵, 인생곡선, 사전설문지와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진행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청년 참여자 삶에 대한 경험, 감정, 인식 등을 최대한 듣고자 열린 마음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면접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서의 행복과 불행한 감정들은 무엇이고,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청년층 삶에 영향을 주는 개인, 사회, 환경적 측면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정책 당국이 주목해야 할 청년층의 삶과 관련한 지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레임워크 작성 시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3-3> 초점집단인터뷰(FGI) 주요 질문

주요 영역	주요 질문 내용
Ⅰ. 청년의 삶과 행복	- 본인의 삶에서 행복한 순간과 불행한 순간은 언제인가? - 행복과 불행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의견	- 국민 삶의 질 지표 11개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영역과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선택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개인, 사회, 환경 등 청년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청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엇이 있습니까? - 개인/사회/환경적 차원
Ⅳ.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개인·사회의 변화	- 행복 향상 관련 불만족 요인은 해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개인, 정부,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첫째, 마인드맵(mind-map)과 인생곡선을 통해, 본인의 삶에서 행복한 순간과 불행한 순간은 언제이며, 행복과 불행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단계이다. 둘째, 일상 생활에 있어 개인, 사회, 환경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 국민 삶의 질 지표와 영역을 통해 청년의 입장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넷째, 청년층의 삶에 있어,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개인,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2. 면접조사 결과

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 마인드맵 및 인생 곡선 관련

1) 일상에서 행복, 만족감, 즐거움, 편암함을 느끼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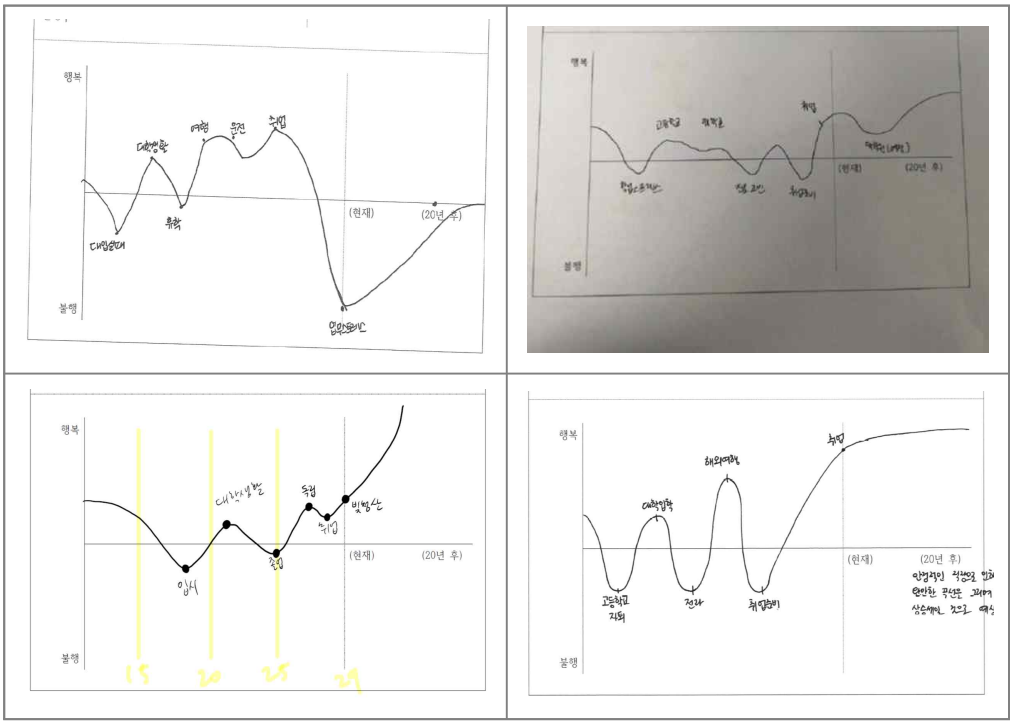
연구진은 참여자들에게 어느 순간 행복했고, 무엇이 본인들의 삶을 만족스럽게(행복하게) 하는지 인생 곡선과 마인드맵을 통해 작성토록 하였고, 이 결과를 정리하여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웰빙)에 대해 탐색하였다.

가) 행복한 순간

인생 곡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표현한 것을 보면, 청소년기 가족·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대학 생활, 여행, 독립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

다. 가족관계는 청년의 독립 여부를 떠나 청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대부분 언급되었으며 입시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대학 생활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와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족 간 불화가 있거나 소통이 어렵거나 할 때는 불안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꼈고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고 함께 무언가를 즐길 수 있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거나 여행을 같이 가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행복하다고 느꼈다.”(A4, 남, 27세 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그림 3-1> 청년들의 인생 곡선 예시

“중 3때 친구 관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후 인간관계에 대해 나름대로 밸런스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대학교에 와서 많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꼈다” (A5, 여, 26세 비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연구진은 청년들을 면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림과 단어로 표현하는 마인드맵(mind map) 도구를 활용하였다. 마인드맵 구조는 행복과 불행으로 구분하여 각각 행복과 관련된 키워드와 불행과 관련된 키워드를 적고 구조화하여 면접의 초점을 한정하고자 사전 설문을 마련했다.

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청년이 그린 마인드맵에서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면 ‘여행’, ‘가족’, ‘휴식’, ‘운동’, ‘친구’ 등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하였다. 가족 및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의 주요한 단어로 등장하였고,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우 자존감, 적정 시간의 과업과 휴식 등이 행복과 관련된 키워드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들과 여행·여가활동,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혼자만의 휴식 등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동시에 응답한 청년들이 많아 일·사회적 활동과 혼자만의 휴식과의 밸런스가 청년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년의 행복에 있어, 좋은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혼자서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즐길 시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 행복 관련 마인드맵 주요 단어 도식(word cloud)

한편, 청년의 행복에 있어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특히, 취업을 앞둔 취준생, 직장 초년생에 있어 경쟁의 공정성,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로써의 인정,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Z 세대의 특징 하나가 절대적인 빈곤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물질적인 결핍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다. 대신 사회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또 신자유주의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행하고 그것이 공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을 때 노력을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현 세대 청년들의 행복함에는 어떤 사회의 공정성이라든가 혹은 기회의 평등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

요하지 않을까.”(A1, 남, 29세 비수도권 거주, 학생)

“고용, 임금 등에 있어, 이전 세대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예전에는 먹고 살 정도의 임금을 준다면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세대는 일자리에 적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노력만큼의 임금 수준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일하는 환경, 회사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다.”(A5, 여, 26세 비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이외에 자기발전, 건강, 경제적 안정, 반려동물(pet)과의 관계 등도 행복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다. 일부 청년들의 경우 종교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도 크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 종교를 가진 청년의 경우 종교는 개인의 영적 행복(만족)을 넘어,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종교 관련 지표도 추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청소년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게임 키워드는 이번 청년 마인드맵 조사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활동, 관계 및 취업 및 구직 활동으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게임이 청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일상에서 불행, 걱정, 불안, 만족스럽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

가) 불행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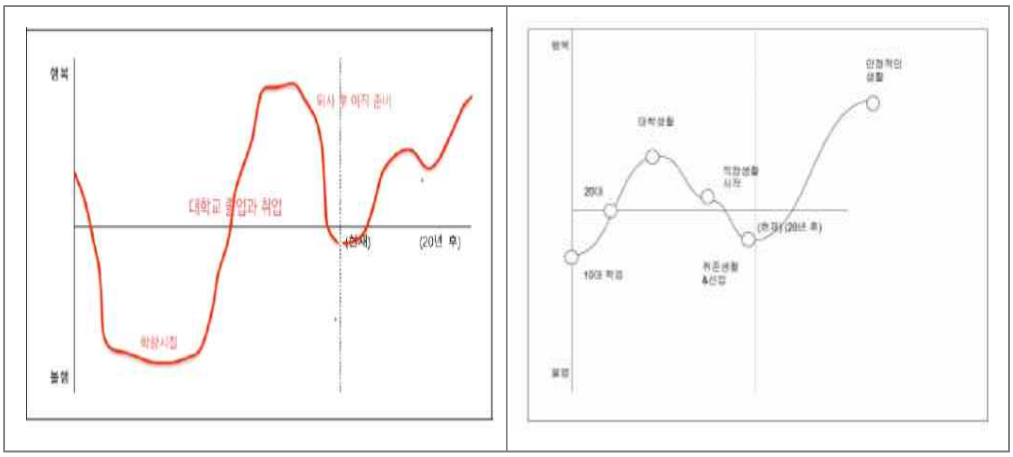
청년들은 불행과 관련해서는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불안정, 자율성의 제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뽑았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 경쟁 심화와 실업 상태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불행의 주요 원인이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많이 축소됐다고 느꼈는데 소속감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집단 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울하고 불행을 좀 많이 느꼈다.”(A5, 여, 26세 비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대입 시험과 취업 준비 시기에 청년들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취업 관련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부담감과 좌절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많은 참가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청년층의 삶의 질에 있어 자율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가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하고 시간 조절을 하고 혹은 소득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A1, 남, 29세 비수도권 거주, 학생)

청년들은 학업에서 고용 시장 진입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막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 자율성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청년들은 취업과 대출 문제 등 이러한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미래의 삶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3-3> 청년들의 인생 곡선 예시

청년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및 다양한 사회적 관계 등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며 사람들의 시선, 타인과의 비교, 성별·세대 간 인식 차이 등이 본격적으로 청년층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무시, 직장에서의 차별, 갑질 등의 인식들이 청년의 삶에 있어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학생회장이나 청년 단체의 대표일 때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과 일개 회원일 때랑 사람들이 대하는 반응들이 다르다는 걸, 알바를 할 때 저를 대하는 사람들과 밖에 가서 만났을 때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온도 차이를 느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높은 편이 사회 살기 편하겠구나, 내가 존중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고...”(A4, 27세, 남, 수도권거주, 취업 준비 중)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은 세대가 있는데 세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윗자리에 계신 분들은 갑질이 아니다.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갑질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MZ 세대랑 기존 세대랑 충돌한다.”(A20, 29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청년이 그린 마인드맵에서 불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면 ‘부족’, ‘스트레스’, ‘사람’, ‘범죄’ 등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하였다. 부족을 불행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언급한 것은 삶의 자율성 부족, 경제적 능력 부족, 인간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연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사람이 동시에 언급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가 불행의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장인 청년에게 더 자주 언급되고 있었다. 범죄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보행 안전, 범죄 피해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 불행 관련 마인드맵 주요 단어 도식(word cloud)

3) 다차원적인 청년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목소리

24명의 청년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그린 인생 곡선이나 마인드 맵을 보면, 개인마다 다양성과 추상성을 강하게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요인 같은 객관적 지표나 상황뿐만 아니라 자유,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의 행복에 있어서 소득 수준, 고용 상태 같은 객관적 지표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적 만족도가 보

다 중요한 지표라고 언급하였으며, 청년들은 지금의 중년층, 노년층에 비해 공정성, 기회의 평등에 대한 가치가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한 감정 또한 느끼게 해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혼자만의 휴식, 여행 등을 통해 양 측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성과 중심, 목표 의식을 강하게 지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지만 어느 순간 번아웃에 걸려서 힘들어 하는 청년의 모습 또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청년들의 시각에서 본 국민 삶의 질 지표 평가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다라 모형 또는 동심원 모형으로 불리는 국민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의 작성 방식을 따라 정리하고자 하였다. 청년들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

1. 아래 표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지표 체계로 각 영역은 측정 가능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청년층(또는 본인)의 삶의 질과 행복 지표를 만든다면, 중요한(포함해야 할) 지표와 그렇지 않은(제외하여야 할) 지표를 표시해 주십시오.

(중요한 지표 O, 중요하지 않은 지표 X, 잘 모르겠거나 판단할 수 없음 : △)

영역	지표	중요도		지표	중요도
가족, 공동체	독거노인 비율	o	소득, 소비, 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
	가족관계 만족도	o		가구중위소득	△
	지역사회 소속감	o		소득만족도	o
	사회단체 참여율	△		소비생활 만족도	o
	사회적 고립도	o		가구순자산	o
건강	기대수명	△		가계부채비율	o
	건강수명	△		상대적 빈곤율	o
	스트레스 인지율	o	환경	미세먼지 농도	o
	주관적 건강상태	o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비만율	o		1인당 도시공원 면적	o
	신체활동 실천율	o		대기질 만족도	o
	자살률	o		수질 만족도	o
교육	유아교육 취원율	△		토양환경 만족도	△
	교육비 부담도	△		소음 만족도	o
	학교교육효과	△		녹지환경 만족도	o
	학교생활 만족도	o		기후변화 불안도	o
	고등교육 이수율	o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
	대학 졸업자 취업률	o		범죄 피해율	o
고용·임금	고용률	o		야간보행 안전도	o
	실업률	o		산재사망률	△
	월평균 임금	o		화재 사망자수	△
	저임금 근로자 비율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근로시간	o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일자리만족도	o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o
주거	자가점유가구비율	△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o
	주택임대료비율	△	시민 참여	선거투표율	o
	1인당 주거면적	o		정치적 역량감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o		부패인식지수	o
	통근시간	o		기관신뢰도	△
	주거환경 만족도	o		시민의식	o
여가	문화여가 지출률	o		자원봉사참여율	△
	여가시간	o		대인신뢰도	o
	여가시간 충분도	o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o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o		긍정정서	o
	1인당 여행일수	o		부정정서	o
	여가생활 만족도	o			

<그림 3-5> 청년 입장에서 평가한 '국민 삶의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예시)

락이 무엇인지, 청년의 삶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전 설문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지표 11개 영역과 62개 지표에 대해 청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지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그림 3-5>).

다. 일상 생활에서의 청년층 삶의 질 영역(프레임워크 중심)

본 연구는 24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지를 포함하여 1회의 본 설문을 실시하여 원격 인터뷰라는 낯선 환경에서 면접 사회자와 별다른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면접자들답게 본인의 의견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주요 의견들은 아래와 같다.

1) 가족·공동체

친밀하고 긍정적인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청년들의 행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청년 참여자들과의 면담에서 대인관계는 청년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유년기의 가족·또래친구에서 청년기로 들어서면서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 긍정적 가족관계

청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물질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판단하여 청년층 삶에서 가족 관계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참여자들은 일관되게 가족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행복의 요인으로 원만하고 즐거운 가족관계를 언급하였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회사를 갔다가 집에 와서 가족끼리 4명이서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농담하는 게 좋다.”(A20, 29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가족 간 불화가 있거나 소통이 어렵거나 할 때는 불안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꼈고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고 함께 무언가를 즐길 수 있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거나 여행을 같이 가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행복하다고 느꼈다.”(A4, 27세, 남, 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가족은 개인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 교육, 가정 환경, 어떤 부모의 사

랑과 폭력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뿌리가 결정되고 관계의 방향이 형성된다.”(A23, 27세, 남, 수도권 거주, 취업 중)

나) 긍정적·부정적 사회적 관계

청년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직장 포함)을 통해 복잡해진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행복감을, 때로는 불행한 감정을 자연스레 느끼게 된다. 청년들은 이성과의 교제와 헤어짐, 직장 생활에서의 소속감과 세대 간 차이로 인한 이질감,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를 통한 자기 발전과 관계 유지의 어려움을 인터뷰에서 토로했다. 부정적 사회적 관계는 번아웃, 사회적 고립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

“친구는 힘들 때마다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럴 때마다 안정감을 얻어서 행복하다.”(A3, 25세, 남, 비수도권 거주, 학생)

“교우 관계에 있어서 선택해야 하는 부분들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후로는 그걸 겪으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친구를 만나거나 공부를 하는 거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다른 활동도 해보고 하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활동만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와서 작년쯤에는 많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A5, 27세, 여, 비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기 시작했다. 취업에 정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소속감이 없는 것 같다고 좀 느껴지고 고립된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A5, 27세, 여, 비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한편, 고용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는 세대 간 갈등, 갑질에 더욱 민감한 성향을 보이며 이는 경쟁, 성과 등에 있어 나이, 특혜가 아닌 공정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성향을 보인다. 소위 MZ세대로 불리 우는 청년세대의 공정과 관련된 의식 및 가치관은 프레임워크 작성을 적극 고려해야 할 영역으로 주목할 만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이야기하는 경우 소위 말하는 꼰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발전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폐쇄적인 의사소통과 일 처리를 진행하며 자신의 상당한 지위를 강조하고 세우는 관계로 사회 조직을 주도하려는 것들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A23, 27세, 남, 수도권 거주, 취업 중)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권위주의나 수직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조직 문화도 유연하게 수평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A11, 26세, 여, 비수도권 거주, 학생)

2) 건강

가) 운동과 자기관리

청년의 삶에서 건강, 운동 또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한편, 청년들은 중장년층,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과 자기관리를 하기보다는 여가활동으로써의 만족과 자존감 향상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였다. 직장 생활, 여러 사회적 관계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상황은 청년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가자의 경우 비만, 외모 관리 또한 경쟁력이며, 비만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직장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밤까지 영향을 준다. 운동 부족이랑 사회 부족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행하다. 시간 부족이 운동 부족이랑 연결이 됐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A17, 27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많이 행복하다. 여가 활동 부분에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거의 못했는데 심리적으로 쳐져 있고 활동적이지 않고 활발하지 않은 상태로 직결된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에게 행복과 불행을 좀 나누는 기준이 됐다.”(A4, 27세, 남, 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외모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도 아침에 피부가 좋으면 기분이 좋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아무리 자기가 행복에 있어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면 불안해지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패턴이... 운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통해서 몸이 바뀐다거나 건강한 습관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행복의 일등 공신...”(A7, 20세, 여, 수도권 거주, 학생)

“외적인 자기 발전도 중요하고 건강이나 체력 증진이나 요즘에는 외모 꾸미는 것도 중요한 시대여서...”(A4, 27세, 남, 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나) 정신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의 청년 참여자들의 만성질환, 장애 등과 관련된 육체적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였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직장 및 사회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유년기를 벗어나 고용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 다차원적 인간관계로 급격하게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인터뷰에서도 갑질, 번아웃 등으로 인한 정신 건강 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언급한 참가들이 있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관련된 지표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A19, 28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 특히, 직무 스트레스 관련해서 또래 사이에서는 갈등이 별로 없는데 다른 세대 아니면 윗사람 이렇게 오는 갈등이 제일 크다.”(A20, 29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스트레스 인지율이랑 자살률 같은 정신적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 청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정신 건강 지원 사업도 펼쳐지고 있는 만큼 청년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관심도 늘어났는데...”(A8, 25세, 여, 비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3) 교육

가) 대학생활과 취업부담

청년들은 대체로 대학 생활은 행복한 시기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대학 입시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자유, 독립과 다양한 인간관계 확대에 따른 새로움의 영향이라고 파악되었다. 반면, 고용 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 부담은 청년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축소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극심한 스펙 쌓기와 이로 인한 휴식 시간 부족과 정신의 황폐화는 청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 청년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일자리와 취업 스트레스이며 이의 해결이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책무일 것이다.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을 고3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불행했다고 느꼈고 수능 종료와 졸업과 동시에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면서 행복감을 찾았고 대학교에선 학생회 활동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지역 내 청년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행복한 시기에 접어들었다.”(A4, 27세, 남, 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현재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취업이 제일 크다. 4학년이니 취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제일 크고 아직 학생이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A3, 24세, 남, 비수도권 거주, 학생)

“지금 처한 상황에선 불안이나 좌절,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취업준비 과정에서 결과 값이 뚜렷하게 안 나올 때 불안을 느낀다. 상황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동결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PLAN B를 설정해야겠다.” (A4, 27세, 남, 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스펙을 관리해야 되는 압박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격증을 따고 어학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대학교를 다녔지만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방통대를 다녔다. 복수 전공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게 됐고 경진대회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A19, 28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나) 진로 불안과 직업 훈련

청년들의 진로 고민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 선택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학 학과, 스펙 등 취업 준비 정도와 실제 취업과의 연관성은 청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년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 외 국가 지원 등의 직업훈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인재 수요가 많은 빅데이터, 코딩 분야 재교육이 대표적일 것이다. 본 인터뷰에서는 재학 중인 대학과 학과 및 취업 분야를 실제 조사하지 않았으나, 대학 졸업 후 코딩 교육 등 국가 지원의 훈련을 통해 취업 분야를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청년 실업 관련하여 대학 교육 외 직업 훈련 이용 및 만족도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이 안 돼요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해서 당황하다가... 코딩 학원에 갔어요. 국비 학원에 가서 컴퓨터 쪽으로 전향을 해서 금방 취업이 됐어요.”(A15, 28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제가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를 졸업했는데 전공을 살리면 안정은 유지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제게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전공도 직업도 바꾸게 된 것이라.,. 20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전문 교육을 받았고 엄청 만족을 한다기보다는 빅데이터 분야가 이전보다 어떤 것들이 있고 직업 비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후 국비 지원 제도를 통해 사설 학원에서 더 공부를 했다. 국가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직업 교육 자체의 만족도는 꽤 괜찮은 편이다.”(A18, 33세, 여, 비수도권 거주, 취업 중)

다) 성취 욕구로서의 역량 개발

청년들은 그것이 스스로의 욕구이든 아니면 타인에의 인정 욕구이든, 가장 크게는 역량 향상을 기반으로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 때문이든, 공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는 편이었다. 이러한 욕구는 직장 생활에서도 나타났는데, 직장 초년생이라고 해서 역량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단순 업무가 주어지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평생직장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청년들은 본인들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

“직업 특성상 같은 직장에 계속 있다 해도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 고인물이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기술에 따라갈 수 있으니 도태되지 않으니까 중요하다. 직업 특성상 한 곳에 오래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 경험을 쌓아야 고인물이 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이직은 어쩔 수 없다.”(A13, 26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저의 성장 가능성이나 자기 개발, 미래 적성 등... 저한테는 당장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고 기반이 되어야 할 수 있지만 그걸 원했다면 전공을 살려서 소득이 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취득을 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새로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저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다.”(A18, 33세, 여, 비수도권 거주, 취업 중)

4) 고용·임금/여가

청년층의 삶에서 일자리와 임금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측정에 있어 연봉, 취업률 등 평균을 보여주는 단순 지표보다는 일에 있어 주관적 만족도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 회사의 부당한 대우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에 있어, 특히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취업한 후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생활하였던 60년대생과는 직업을 대하는 가치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학생 때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으나, 취업을 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올라서 일자리나 직장이 행복과 불행에서 굉장히 중요하다”(A6, 29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고용, 임금 등에 있어, 이전 세대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예전에는 먹고 살 정도의 임금을 준다면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세대는 일자리에 적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노력만큼의 임금 수준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일하는 환경, 회사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다.”(A5, 26세, 여, 비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고용이랑 임금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연봉을 전체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 시간이나 일자리 만족도가 중요하다.”(A12, 32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취업률이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낮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데 매스컴에서 실업에 대한 얘기가 많고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를 통해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가?”(A1, 29세, 남, 비수도권 거주, 학생)

한편,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역 간 격차, 성별 차이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지역 간 격차(비수도권/수도권), 일부 산업의 경우 성별 간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프레임워크 작성 시에도 이러한 격차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가 공학 쪽인데 동기 150명 중에서 남자들은 성적이 낮거나 스펙이 없어도 회사를 잘 가는데 여자들은 동기 중에서 한 명만 전공에 맞는 곳으로 가고 나머지는 저희 수석도 영어 성적도 높고 스펙도 엄청 많고 학생회도 했던 사람이 바리스타로 빠졌다. 취업이 안 돼요..”(A13, 27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제 친구가 제가 사는 지역에서 취업했는데 연차나 이런 것들도 쓰기가 어렵고 야근 수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방의 기업일수록 많다. 연휴에 쉬었으면 휴가에서 빼서 휴가 일수를 차감한다. 나는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A8, 24세, 여, 비수도권 거주, 취업준비 중)

청년들은 대체로 일자리와 더불어 충분한 여가·휴식의 균형 있는 삶을 중히 여겼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은 청년들의 경우 통근 시간 절약, 일의 능률 측면에서도 행복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재택근무와 휴식 그리고 공부에 초점을 맞췄다. 좋아하는 일이나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몰입하고 휴식하고 취미 그리고 재택 근무할 때 행복했다.”(A13, 27세, 여, 수도권 거주, 취업 중)

“생계의 안정이라든지 현실적 요소도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는 상태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주기적인 운동이랑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휴식과 여행이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취미생활이 중요하다.”(A18, 33세, 여, 비수도권 거주, 취업 중)

3. 청년 FGI 소결

24명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인터뷰를 정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은 입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독립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 생활에서 대체로 행복감을 느꼈으나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는 스펙 관리 등 취업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둘째, 사회적 관계 확장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공감하지만, 청년기 이후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신자유주의 기반의 확산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시대에서 청년들은 취업 이후에도 자기 개발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의 필요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직장 입사 시 단순 업무의 지속과 소위 갑질 등 기성세대와의 세대 간 갈등은 청년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주고 있었다. 넷째, 기성세대에 비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보다 중시했다. 다섯째, 극심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 안정감을 찾고자 여가, 여행, 반려 동물 키우기, 종교 활동으로 인한 정서적·사회적 지지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름의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여섯째, 안전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이버상 젠더 폭력 등과 관련한 안전 또한 중요한 이슈로 삼고자 하였다. 한편 종교를 믿는 경우 청년들의 경우, 종교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하였다.

청년 참여자들은 정부의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이러한 인터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러한 소통의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층 삶과 행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진행될 청년층 삶의 질 프레임워크 지표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작성과 핵심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아일랜드는 0~24세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구축하면서 전문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여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구성의 타당화 작업을 통해 합의를 이룬 바 있다(Hanafin & Brooks, 2005). 본 연구인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작성에 있어 통계개발원에서는 3차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했으며 1차는 학계 및 연구원의 청년 이슈 관련 발제 발표를, 2차는 프레임워크(안) 관련 타당성 및 지표 중요도 평가를 통한 지표체계 구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3차는 2차에 응답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레임워크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표 3-4> 전문가 의견 수렴 개요

	1차	2차	3차
조사 시기	2022.4.22	2022.9.22.~9.30	2022.11.4
조사 대상	대학교수(4명) 연구원(2명)	대학교수(1) 연구원 (6) 정부기관(2) 민간전문가(1) 청년단체대표(1)	대학교수(1) 연구원(3) 민간전문가(1)
조사 방법	전문가 세미나(대면)	서면 설문조사	대면 회의
주요 내용	청년 관련 발제 발표(2) - 정책 수요자로서의 청년과 청년정책 - 청년 세대 삶의 질과 행복	프레임워크(안)의 타당성 및 세부 지표 중요도 평가	프레임워크(안)의 타당성

본 절에서는 2차 서면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실시했던 프레임워크(안)에 대한 지표 중요도 평가 조사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지표 중요도 평가 개요

가. 지표 중요도 평가 조사의 목적

연구진은 국민 삶의 질 지표 영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청년 FGI 및 국내외 문헌연구를 토대로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프레임워크(안)에 대해 전문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지표체계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타당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였다. 의견수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여가의 균형을 강조하는 청년의 시각을 고려할 때 영역 구성 시 일자리-여가를 동일 영역으로 구성할지,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와 같이 일자리와 여가 각각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할지 여부이다. 둘째, 기회의 공정, 세대 간 및 세대 내 갈등 등 청년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의식·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할지 여부이다. 셋째, 기차 프레임워크(안) 지표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이다.

나. 참여 전문가

참여 전문가는 대학교수(1), 연구원(6), 정부기관(2), 청년단체 대표(1), 민간 전문가(1)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청년정책 및 청년층 삶의 질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 위주로 섭외하였으며,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청년단체 대표 및 정부기관과 민간에서 모두 청년정책을 담당해 본 민간 전문가 등도 포함시켰다.

<표 3-5> 참여 전문가 소속

	ID	소속기관	소속부서(학과)
1	A1	대학 교수	사회복지학과
2	A2	국책기관 연구원	부연구위원
3	A3	국책기관 연구원	책임연구원
4	A4	국책기관 연구원	책임연구원
5	A5	국책기관 연구원	선임연구원
6	A6	국책기관 연구원	센터장
7	A7	국책기관 연구원	부연구위원
8	A8	청년단체 대표	이사장
9	A9	민간 전문가	-
10	A10	국무조정실	담당 사무관
11	A11	통계청	담당 서기관

다. 조사 방법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작성(안) 10개 영역 60개 각 지표별 5점 척도의 중요도 평가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조사는 2주간에 걸쳐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2주간)로 진행하였다. 중요도 평가는 11명의 전문가 외에 청년 FGI 대상자 중 10명의 청년도 포함하였다.

2. 의견 수렴 결과

가. 영역구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영역구성에 대한 의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와 여가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여가는 일자리 외에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일자리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일-여가 영역 통합하자는 의견은 청년에 있어, 일-여가 워라벨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일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논리였다. 둘째, 의식·가치관 영역은 청년 이슈(젠더 갈등, 정치 성향, 국가 역할 등)에 대한 환기 차원에서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의식·가치관 영역 지표들은 사회지표로서는 흥미로우나 증감을 파악해야 하는 지표 체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별도 영역보다는 참고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셋째, 전반적 프레임워크 체계 관련하여서는 지표 체계 구축 시 청년 세대를 재학생, NEET, 세부 연령별, 결혼 여부, 취업 여부 등 세부 계층별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사회적 관계 영역의 추가 보완, 프레임워크의 이론적 구성의 재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6> 영역구성 관련 전문가 주요 의견

질의 내용		주요 검토 의견
❶ 일·여가 영역 분리 여부	분리 필요(7)	· 여가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기능도 수행 · 일-생활 균형 측면에서 시민참여와 관련
	분리 불필요(3)	· 일-여가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측면 · 다만, 청년의 취업 상태에 따라 여가의 재량 시간이 다름에 유의
❷ 의식·가치관 영역 별도 구성	별도 구성(9)	· 최근 청년층 이슈(젠더 갈등, 정치 성향, 소수자에 대한 인식, 국가 역할 등)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별도 영역구성 필요
	참고 지표(1)	· 의식·가치관 영역 지표들은 사회지표로는 흥미로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감에 따라 웰빙을 파악할 수 없어 웰빙 지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❸ 기타 의견	· 비교의 기준 설정 중요: 청년 구분(재학생/NEET/입직, 20대/30대, 미혼/결혼), · 기존 차원 분류에서 사회적 관계의 영역이 협소해 보임, 차원 구성의 네이밍 재구성 필요, ex)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차원 등 · 객관적 불평등 지표 보완 필요/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표가 적음 · 웰빙 측정 프레임워크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차원'이 어떠한 이론적 기반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불분명함 · 해당 지표들이 영역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내용 타당도 고려

나.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10개 영역 60개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5점 척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60개 지표 중 전문가와 청년 모두 4.0 미만의 평가를 받은 지표는 11개였다. 영역별 지표 평균은 거주 환경(4.3), 주관적 웰빙(4.5) 영역이 높았으며, 교육(3.8), 의식·가치관(3.9)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와 청년이 중요시하는 지표들은 모두 일치하지 않았으며 청년들은 전문가들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된 지표들을 선호하였다.

<표 3-7> 영역별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지표 평균)	지표(60)	
경제적 여건 (4.0)	❶청년 가구 소득(4.6)	❷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3.8)
	❸청년 신용대출비율(4.0)	❹(지출) 생활비/소비지출(3.8)
	❺상대적빈곤율(3.8)	❻의존도(사적이전소득 비율)(4.0)
	❼소비생활만족도(3.8)	
교육 (3.8)	❶학교 생활 만족도(4.0)	❷직업과 전공 일치도(3.6)
	❸직업 훈련 경험(만족도) 여부(3.7)	❹학교 교육의 취업 도움 정도(4.0)
일자리/여가 (4.1)	❶학교 졸업 후 취업 소요 기간(4.1)	❷고용률(4.4)
	❸저임금 근로자비율(4.0)	❹연령별 초과근로시간(3.6)
	❺일자리 만족도(4.4)	❻임금 격차(4.3) (사업체 규모/성별/고용형태별)
	❼업무 수행 자율성 정도(4.0)	❽여가시간(3.9)
	❾여가생활만족도(4.0)	❿일-여가 균형 정도(4.5)
건강 (4.1)	❶스트레스 인지율(4.6)	❷주관적 건강상태(4.1)
	❸번아웃(burn-out) 경험률(3.9)	❹신체활동실천율(중등도 이상)(3.8)
	❺비만율(3.8)	❻자살률(4.1)
	❼우울감 경험률(4.4)	
의식/가치관 (3.9)	❶자율성(4.0)	❷공정성 인식(4.1)
	❸소득불평등 인식(4.0)	❹지역 격차에 대한 인식(3.8)
	❺결혼의 중요성 인식(3.5)	❻기후변화불안도(3.7)
관계/참여 (4.1)	❶가족관계만족도(4.4)	❷지역청년의 정주 의식(3.6)
	❸사회적 고립도(4.5)	❹대인신뢰도(4.6)
	❺사회적 교류 정도(4.6)	❻선거투표율(4.5)
	❼정치 활동 참여율(4.1)	❽기관 신뢰도(3.7)

영역(지표 평균)	지표(60)	
안전 (4.1)	❶야간 보행 안전도(4.1)	❷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4.5)
	❸강력 범죄 피해 정도(3.8)	❹데이트 폭력 발생(신고) 건수(4.2)
	❺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4.0)	❻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4.1)
거주 환경 (4.3)	❶주택임대료 비율(4.4)	❷1인당 주거 면적(4.1)
	❸1인 가구 주택외 거처 비율(4.0)	❹주거 환경 만족도(4.5)
	❺통근(통학) 시간(4.5)	❻문화(편의)시설 접근 용이성(4.0)
주관적 웰빙 (4.5)	❶삶의 만족도(4.8)	❷긍정정서(4.4)
	❸부정정서(4.4)	
배경지표 (4.0)	❶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4.3)	❷청년 가구주 규모 및 비중(3.9)
	❸청년 관련 정책 예산 규모(4.0)	

* ( ), 영역 및 지표별 중요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점수
* 전문가 및 청년 모두 중요도 평가에서 4점 미만을 받은 지표 청색으로 표시

1) 경제적 여건

경제적 여건 영역 중 청년 가구 소득 지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지출) 생활비/소비지출, 소비생활만족도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의 경우 전문가 집단에 비해 소비지출과 소비생활만족도에 중요도를 더 두는 경향이 있었다.

<표 3-8> 경제적 여건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경제적 여건 (4.0)	❶청년 가구 소득	4.6	4.7	4.5
	❷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LTI)	3.8	3.8	3.8
	❸청년 신용대출비율	4.0	4.0	4.1
	❹(지출) 생활비/소비지출	3.8	3.6	4.0
	❺상대적빈곤율	3.8	4.1	3.5
	❻의존도(사적이전소득 비율)	4.0	4.0	3.9
	❼소비생활만족도	3.8	3.3	4.2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❺상대적빈곤율: 독립적 자산만이 아니라 부채 및 부모 이전소득 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 빈곤율 측정이 갖는 실효성과 의미가 크지 않을 것 ▶ 청년은 단독가구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❷, ❹, ❺ 등의 측정이 19-34세 청년의 특징을 잘 포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소비는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바, 핵심생활비 또는 필수지출 등이 정의되지 않는 경우, 지표로써의 의의가 적을 것으로 봄. ▶ 경제영역 지표를 측정할 때 청년 개인이 속한 가구를 모두 포함할지,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지 확인이 필요 ▶ ❸청년 신용대출비율: 사용출처/대출기관 파악도 중요

추가 지표	▶ (대출 후 원리금 상환 시 연체 경험) 경제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지표로 활용 가능 ▶ (부동산 및 자동차의 소유, 주식 및 가상화폐의 투자 여부) 소득은 현금흐름(Flow) 성격이 강함. 자산(stock)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 검토 필요 ▶ (자산대비 부채비율, 순자산 점유율) 최근 자산 불평등 심화로 자산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관리 필요 ▶ (청년 채무조정자 수, 신용유의자 수) 부채 관련 행정데이터 등 객관적 지표 추가 ▶ (소득지니계수, 순자산지니계수, 5분위배율) 청년 집단 내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불평등 수준 직접 지표 추가

2) 교육

직업과 전공 일치도, 직업 훈련 경험(만족도) 여부 지표는 전문가와 청년에서 모두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교 생활 만족도를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 만족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구성 및 청년 니트비율 등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8> 교육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교육 (3.8)	❶학교 생활 만족도	4.0	3.7	4.2
	❷직업과 전공 일치도	3.6	3.3	3.8
	❸직업 훈련 경험(만족도) 여부	3.7	3.6	3.7
	❹학교 교육의 취업 도움 정도	4.0	4.1	3.9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고용시장 진입을 위한 도구로만 교육을 측정하고 있는 듯함.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시각/시야가 넓어진다 등의 경험 지표 추가 필요 ▶ ❶학교 생활 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이 다양하여 지표로서 실효성 부족, 취업/창업/진로설정/사회적관계망 등 분야별 도움 정도 분리 ▶ ❸직업 훈련 경험(만족도) 여부: 직업 훈련 경험(만족도)은 재학시기/졸업 이후로 구분해야 함 ▶ ❸직업 훈련 경험 여부에서 어떤 직업 훈련인지 추가 질문 필요, 만약 없다면 참여하지 않은 이유 조사, 만약 직업 훈련을 받게 된다면 훈련 주체(ex. 학교, 정부, 사설학원 등)가 어디가 되길 바라는지도 물어본다면 향후 정책 설계 시 유용 ▶ 교육/역량의 접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학교 졸업 후 취업 소요기간의 지표는 school to work transition의 상황을 보여주므로 교육 영역으로 이동 ▶ ❷직업과 전공이 일치하는 것이 현재의 청년층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명확

	▶ ❶학교 생활 만족도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중요하지만, 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학교 생활 만족도를 묻는 것은 애매함. 차라리 이행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기회,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추가 지표	▶ (대학 교육의 질) 예상했던 것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대학 교육이 도움되는 정도 ▶ (직업 교육) 직업 훈련 외에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또한 공적 교육시스템에 대한(직업/평생교육 차원) 질문 추가 ▶ (청년 니트 비율) ▶ (교육 중단 경험률, 고등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 비율)

3) 일자리·여가

연령별 초과근로시간 지표는 전문가와 청년에서 모두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일자리 만족도, 업무 수행 자율성 정도, 일-여가 균형 정도 지표들은 유사 중복의 성격이 있어 해당 지표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표 3-9> 일자리·여가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일자리·여가 (4.1)	❶학교 졸업 후 취업 소요 기간	4.1	4.4	3.9
	❷고용률	4.4	4.7	4.1
	❸저임금 근로자비율	4.0	4.1	3.8
	❹연령별 초과근로시간	3.6	3.7	3.5
	❺일자리 만족도	4.4	4.3	4.5
	❻임금 격차(사업체규모/성별/고용형태별)	4.3	4.2	4.5
	❼업무 수행 자율성 정도	4.0	3.8	4.3
	❽여가시간	3.9	3.7	4.0
	❾여가생활만족도	4.0	3.7	4.2
	❿일-여가 균형 정도	4.5	4.6	4.4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❶취업소요기간보다는 취업가능성이 보다 적합 ▶ ❺, ❼, ❽, ❾, ❿은 상호 중복성 있는 지표임. ❺일자리 만족도의 하위 구성지표로 임금/근로시간/조직문화로 구분 필요. 취업/창업 (자영업 등) 구분 필요. 또한, 근로형태(정규직, 비정형근로자 등) 세분화 검토 ▶ ❹초과근로시간을 연령별로 보는 맥락이 불분명, 직종/성별/고용형태별 등 오히려 ❻번의 세부항목이 더 설명력이 있어 보임 ▶ ❸ 저임금 근로자비율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지표로 지속 가능한지 의문임. 고용의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졸업 전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 명확화 필요. 여가는 정의가 매우

	큰 개념으로 여가시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 혹은 여가시간과 여가생활 만족도 지표의 개념의 조정 필요
추가 지표	▶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부당한 대우) ▶ (조직 문화) ▶ (청년 니트 비율) 핵심고용지표인 실업률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니트 비율을 비롯해 구직단념자 비율 등 고용 보조지표도 추가할 필요 ▶ (산재 청년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일가족양립제도 이용률) 일자리의 고용안정 측면의 지표 고려

4) 건강

번아웃(burn-out) 경험률, 신체활동실천율(중등도 이상), 비만율 등의 지표들은 전문가와 청년에서 모두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주관적 지표 위주로 영역이 구성되어 객관적 지표 추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0> 건강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건강 (4.1)	❶스트레스 인지율	4.6	4.8	4.4
	❷주관적 건강상태	4.1	4.3	4.0
	❸번아웃(burn-out) 경험률	3.9	3.8	3.9
	❹신체활동실천율(중등도 이상)	3.8	3.8	3.7
	❺비만율	3.8	3.8	3.8
	❻자살률	4.1	4.5	3.7
	❼우울감 경험률	4.4	4.7	4.2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❸번아웃 경험률이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전체 청년 인구의 경험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타당성이 달라질 것임 ▶ 비만율과 관련하여 외모 만족도도 고려, 실제로 외적인 관리(성형수술, 눈매 교정, 치과 시술 등)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음
추가 지표	▶ (정기적 건강검진, 병원 이용 관련) ▶ (흡연/음주율) 약물 남용(substance abuse) 관점 ▶ (청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환자 수, 고독사 청년 비율)

5) 의식·가치관

지역 격차에 대한 인식, 결혼의 중요성 인식 등의 지표는 전문가와 청년에서 모두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른 영역에 비해 의식·가치관 영역은 지표 정의서 작성 시 각 지표가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 및 대상, 포괄범위 등 지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의식·가치관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의식·가치관 (3.9)	❶자율성	4.0	3.4	4.5
	❷공정성 인식	4.1	4.0	4.3
	❸소득불평등 인식	4.0	4.2	3.8
	❹지역 격차에 대한 인식	3.8	3.7	3.9
	❺결혼의 중요성 인식	3.5	3.6	3.4
	❻기후변화불안도	3.7	4.1	3.4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❻기후변화불안도 영역은 불안도가 민감도를 의미하는지 인지도를 묻는 것인지 불명확,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 정도 변경 고려 ▶ 공정성 인식은 Equality(평등)과 Equity(공평, 형평성) 그리고 Justice (정의, 분배평등)을 구별해야 함. 남/녀 불평등 인식도 조사 고려 ▶ 인식/가치관 지표가 위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면, 해당 항목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측면'에 배치하는 것이 더 타당 ▶ 공정성은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을 묻고 있음. 지표에 포함하려는 공정성 인식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려움 ▶ 가치관은 사회지표로서는 의의가 있으나, 가치관 지표의 증감으로 웰빙의 증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체계에서는 제외 고려
추가 지표	▶ (자산격차에 대한 인식, 성(gender) 평등 인식 또는 차별) ▶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성평등 인식, 노인 등 여타 세대에 대한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 집단 간 갈등 인식. 인구변화에 대한 위협 인식) ▶ (결혼과 더불어서 가족관 전반, 국가관, 인생관) ▶ (자녀-부모 부양에 관한 인식) ▶ (직업가치관)

6) 관계·참여

지역 청년의 정주 의식, 기관 신뢰도 등 지표는 전문가와 청년에서 모두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역 청년의 정주 의식은 지역 사회 소속감 등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 관계·참여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관계·참여	❶가족관계만족도	4.4	4.4	4.5
	❷지역청년의 정주 의식	3.6	3.5	3.6
	❸사회적 고립도	4.5	4.5	4.5
	❹대인신뢰도	4.6	4.6	4.5
	❺사회적 교류 정도	4.6	4.6	4.5
	❻선거투표율	4.5	4.4	4.6
	❼정치 활동 참여율	4.1	4.2	4.0
	❽기관 신뢰도	3.7	3.6	3.7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❶ 원가족 또는 새로 형성한 가구(신혼부부)를 의미하는지 불분명 ▶ 청년은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교류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 자발적 배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청년 삶 실태조사 문항에 포함되어 있음) ▶ ❷질문의 의미가 모호함, 지역에 대한 애착 또는 소속감 등 표현 고려 ▶ ❷지역사회 공동체 인식을 고려한 것인지, 관계의 범주가 가족-지역 공동체-국가-사회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주 의식보다 직접적인 지역사회 공동체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 고려, 정주 의식은 현재 한국사회 지역 간 기회구조 격차를 고려할 때 다소 이질적 ▶ ❺, ❼ 온/오프라인 모임 모두 고려 필요 ▶ ❼ 선거투표는 정치활동 세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음 ▶ ❽ 기관 신뢰도는 현재 다니는 일자리, 회사에 대한 소속감인지 일반적인 정부 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인지 모호함 ▶ ❽ 기관 신뢰도는 특정기관의 개별적인 경험에 크게 좌우됨. 전반적으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항목 검토 고려
추가 지표	▶ (활동 중인 사회단체 소속감, 시민단체 후원) SNS 또는 오프라인 활동 여부 ▶ (정당, 단체 가입) ▶ (사회에 대한 신뢰 집단 간 갈등 인식. 인구변화에 대한 위협 인식)

7) 안전

청년의 경우 야간 보행안전도, 강력 범죄 피해 정도 지표 등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 관련 지표 등 객관적 안전 지표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안전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안전 (4.1)	❶야간 보행 안전도	4.1	3.8	4.4
	❷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4.5	4.5	4.5
	❸강력 범죄 피해 정도	3.8	3.4	4.1
	❹데이트 폭력 발생(신고) 건수	4.2	4.3	4.1
	❺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	4.0	3.8	4.1
	❻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4.1	4.3	4.0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❹ 전반적 폭력 경험 비율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가정폭력/데이터 폭력 등이 모두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안전 영역은 객관적/주관적 지표에 대한 균형이 필요해 보임
추가 지표	▶ (주거지 침입 위험) ▶ (보이스 피싱 피해 두려움, 무차별적 예기치 못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안전 위협에 대해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 (가정폭력) ▶ (거주지역의 안전도) ▶ (주간보행 안전도) 킥보드 등 안전 사고 급증 ▶ (범죄 기사 민감도)

8) 거주 환경

거주 환경 영역 관련 지표들의 중요도 평균은 4.3으로 타 영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청년에 있어 4.7로 60개 지표 중 '삶의 만족도 지표'를 제외하고 가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3-14> 거주 환경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거주 환경 (4.3)	❶주택임대료 비율	4.4	4.3	4.5
	❷1인당 주거 면적	4.1	3.9	4.3
	❸1인 가구 주택외 거처 비율	4.0	4.1	4.0
	❹주거 환경 만족도	4.5	4.3	4.7
	❺통근(통학) 시간	4.5	4.3	4.6
	❻문화(편의)시설 접근 용이성	4.0	3.9	4.2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❶ 소득대비 주택 임대표 비율 ❷1인당 주거 면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 ❸1인 가구 주택 외 거처 비율은 '1인 가구의 불안정 주거 거주 비율' 등의 개념인지 확인 필요 ▶ ❺ 통근 시간인지, 통근시간 만족도인지 불명확. 만족도가 좀 더 적절해 보임.
추가 지표	▶ (반지하 등 재해 위험 거주 환경)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향후 자가마련 가능성, 임대차 불안이나 가격 상승 불안) ▶ (전세사기 위험, 임대차 계약 유지과정에서의 차별) ▶ (PIR, Price Income Ratio) ▶ (RIR, Rent to Income Ratio) ▶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청년층에서 가장 심각 ▶ (주거 형태와 주거비)

9)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표들은 청년들에게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3-15>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주관적 웰빙 (4.5)	❶삶의 만족도	4.8	4.7	4.8
	❷긍정정서	4.4	4.1	4.6
	❸부정정서	4.4	4.1	4.5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부정적 전망 추가 ▶ 미래 이행세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및 긍정/부정정서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 희망(긍/부정)에 대한 질문을 개인차원, 사회차원으로 나누어 불어 볼 필요, 미래 사회 및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도나 진취성 체크 필요 ▶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 불가함
추가 지표	▶ (행복감)

10) 배경 지표

청년 가구주 규모 및 비중 지표는 전문가와 청년에서 모두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청년의 정의에 있어 개인 또는 청년 가구주, 청년이 속한 가구 등 청년 관련 하위 집단 관련 다양한 사회·경제적 세부 통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6> 배경지표 영역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평균(5점 만점)		
		합계	전문가	청년
배경 지표	❶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4.3	4.3	4.3
	❷청년 가구주 규모 및 비중	3.9	3.8	3.9
	❸청년 관련 정책 예산 규모	4.0	3.7	4.2

추가 의견	
기존 지표	▶ 청년 관련 정책 예산 규모의 보완지표로 청년정책 전달체계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위 '청년센터'의 여/부 및 개수 검토, 청년에게는 다양한 기회의 접근성이 중요함 ▶ 청년 관련 정책 예산 규모는 세부 예산을 다 참고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임 - 사회적 결속 및 재생산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나 정치적으로 민감 - 배경지표는 추후 인구/정책으로 분화되어 청년정책별로 제시 현재는 초기 단계이므로 대략적인 정보만 나열될 수밖에 없을 것. ▶ 청년 가구주 규모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명확. 청년정책 자체가 개념이 명료하지 않아서 지표로 관리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봄 ▶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의 경우, 사회지출예산 구분처럼 유형화해 지표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은 그 범주가 불분명하고 청년 1명만 포함되어도 청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정도여서 처음 지표화할 때 그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추가 지표	▶ ('청년센터'의 여/부 및 개수, 지식기반산업의 규모, 대학교육기관 수) ▶ (1인가구 청년 비율) ▶ (청년정책 인지도)

제 4 장

프레임워크 구축

제1절 프레임워크 구성

1. 추진 방향과 접근법

청년층 삶의 질 지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 둘째, 기존 타 지표체계들과의 연관성을 가지되 청년만의 특징을 부각하는 것, 셋째, 최근 청년 관련 세대 간 갈등, 세내 내 갈등(성별/지역/학력), 공정 가치, 기회의 평등, 갑질 등의 이슈를 반영하는 것이다.

첫째,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 방향은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다. 청년층 삶의 질 지표체계 구축의 최종 목적은 청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청년들의 삶은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연령대의 삶과 구분되며, 청년기의 삶은 일자리 이행, 주거 이행, 가족 이행 등의 국면에서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김문길 외, 2021). 청년은 청소년기의 대입 입시 스트레스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기 주도하에 양질의 고용시장 진입을 위해서 스펙 경쟁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세대이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기존 질서와 가치관에 있어 기성 세대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청년 인터뷰 등의 결과를 검토해 보면, 청년들은 대체로 대학 입학 등을 계기로 독립했을 경우, 행복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유와 본인의 의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본 결과일 것이다. 다만, 독립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양질의 직업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취업 준비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와 일시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고립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청년에 있어 행복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만 청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관계에 노출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취업 준비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극심한 사회적 고립감을 토로하였다. 일과 여가와의 관계에서 청년들은 기존의 세대들에 비해 조직보다는 개인의 소중함을 더 인식하며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다른 세대보다 청년들에게 금융위기와 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악영향이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16). 청년들은 고용, 소득, 빈곤, 가족 구성, 건강 등의 영역에 있어서 성인들에 비해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주된 빈곤위험 집단인 노인들은 30여 년 동안 연금을 비롯한 복지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빈곤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청년들이 새로운 빈곤위험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한다(OECD, 2016).

그렇다면 청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영역들은 무엇이 있을까? 변금선(2020)은 청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에 있어 사회적 과업과 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의 영향을 받는 청년의 존재에 주목한다. 청년기의 사업적 과업을 교육자격 획득, 구직과 일자리 이행, 주거분리(독립), 가족형성의 단계로 정의한다. 교육자격 획득으로 인한 위험요인으로는 학비 부담, 일-학업 병행, 학업 중단을, 구직과 일자리 이행에서의 위험요인은 구직비용 부담, 하향 취업, 정보비대칭, 저임금, 불안정 노동, 위험한 일터환경을, 독립된 주거 영역의 위험요인은 주거 빈곤과 독립 포기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 관련 다차원 빈곤을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 역량, 주거 등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에는 경제적 여건, 교육, 일자리, 건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청년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일자리일 것이다. 일자리는 청년에 있어 지속 가능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며, 일자리 여부는 청년의 기타 개인적 차원의 요소들인 경제적 여건, 건강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일자리는 여가와의 관계, 업무 수행의 자율성 정도, 스트레스 등 여가와 건강에도 연계된다. 건강은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특히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 중의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에 노출되어 있다. 청년소득·지출 수준 또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적 요인에서 건강과 소득수준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모든 연령대에 걸쳐 중요한 부분이나, 청년기의 건강과 소득수준은 양질의 일자리 여부와 보다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관계적 차원은 다른 요인보다 좀 더 주관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관계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청년들은 기회의 불공정, 갑질 등 기존 질서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기 때문에 청년의 의식·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청년층 삶의 질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가 부분은 청년층에서 일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여가 그리고 참여 부분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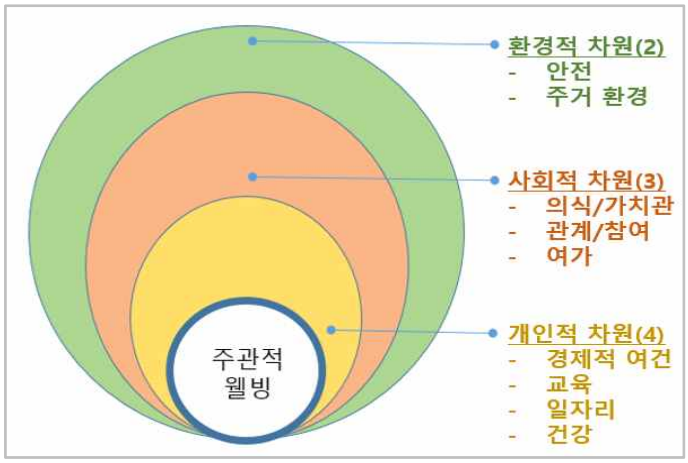
환경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는 '청년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이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사회가 안전하고 쾌적한 지가 청년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는 소위 편세권(편의점과 가까운 주거 지역), 상가 등 편의적 측면의 요소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에게 특히 여성 청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의 제공 여부가 중요하다. '청년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에서는 크게 물리적인 환경을 주로 살펴보지만, SNS에 익숙한 청년 세대들에게 사회적 큰 위협으로 비춰지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등 사이버 안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과 직장으로의 통근(통학) 시간도 청년층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2. 프레임워크 구축

프레임워크란 측정 대상 또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이론 체계를 의미한다(지표작성 방법론 2019, 변준석 외). 즉 측정 대상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지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변준석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 지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측정목표(개념), 관심 영역(이슈), 정책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면 첫째,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청년의 '삶의 질'이다. 둘째, 청년층 삶의 질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은 소득·소비·자산, 고용, 건강, 안전, 환경 등 삶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나, 최근 청년층의 관심을 반영한 워라벨, 공정, 여가, 세대별·세대 간(성별·지역별) 삶의 질 격차 등 사회적 이슈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셋째, 대상은 청년정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정책 집행의 수혜를 받는 청년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의 연령 기준인 만 19세~34세의 인구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한정한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청년기, 즉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중간 단계의 특징으로, 학교에서 일자리로, 부모 집에

서 나의 집으로, 원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의 3가지 이행기, 즉 '직업' 이행, '주거' 이행, '가족' 이행에 주목한다. 2022년 현재 한국에서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은 위의 3가지 이행 과정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족'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행 후 육아, 출산 등으로 지표 체계를 새로 구성해야 될 만큼 이질적인 특성을 보여 이번 연구에서는 결혼(동거)·출산·육아 등 '가족' 이행 관련 지표는 제외하였다. '직업' 이행과 '주거' 이행의 관점에서 청년은 취업 전후에 경제적 여건, 여가, 사회적 관계 등 대부분의 삶의 질 영역에서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많은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프레임워크 및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프레임워크 구축과정에서는 기존 지표체계와의 연관성과 함께 청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다른 연령대와 다른 청년들의 특징, 최근의 청년 관련 이슈들을 프레임워크에 반영하였다. 청년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개인적, 관계적, 환경적 요인 3개이며, 개인적 차원은 경제적 여건, 교육, 일자리, 건강 영역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식·가치관, 관계·참여, 여가 영역을, 환경적 차원에서는 안전, 거주 환경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배경지표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9개의 각 영역들이 청년들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영역들은 주관적 웰빙과 함께 청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영역들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그림 4-1>).



<그림 4-1>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지표체계는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는 10개 영역과 함께 배경지표 영역을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배경지표 영역은 청년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청년 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현황 나타내는 통계를 수록한다. 전체 영역은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들은 해당 영역에서 지향하는 목표에 맞춰 가치를 부여한 영역 명칭이 아닌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였다.

‘배경지표’ 영역은 청년 인구 분포 현황을 제시하는 영역으로 다른 영역들의 배경이 되는 지표로 구성된다. 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청년 가구 및 세대 구성, 대학 진학률 등 청년의 일반적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청년기본법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청년정책 예산 규모 등을 포함하는 것도 추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개인적 차원 중 ‘경제적 여건’은 소득·지출·자산·부채 등과 관련된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영역에서는 (소득·자산) 빈곤율 및 부모 가구로부터의 경제적 의존도 등 경제적 독립과 관련된 지표들도 포함한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주택 구매 등에 대한 소위 영끌로 대표되는 청년층 부채 문제, 부모 가구로부터 주거 독립은 하였으나 소득 등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청년층의 경제적 삶의 질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여건 영역은 청년 개인과 청년이 속한 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영역은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과 관련된 지표들이 일자리로의 이행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지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만족도, 대학 교육 이수율 등의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표보다는 학교 졸업 후 취업 소요기간, 대학 교육의 취업 정도, 직업 훈련 경험(만족도) 여부 등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청년층의 삶에 있어 직업을 얻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교육 영역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지표들로 한정하였다. 결국 교육 영역은 일자리 이행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선정하였다.

‘일자리’는 청년기의 직업 이행과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시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기반 경제에서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고용의 질과 관련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속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삶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작금의 MZ 세대 청년들은 직장 초년생으로서 기존의 불합리한 직장 문화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고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 자율, 일-여가 워라벨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건강’ 영역은 청년 세대보다는 중장년층, 노인층에서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청년층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공황장애, 번아웃 등 정신적 건강상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고립에 관련된 우울감, 자살률, 운동 등 신체활동 등도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의식·가치관’ 영역은 기존의 삶의 질 지표와 달리 별도의 영역으

로 구성한 특징이 있다. 이는 소위 MZ 세대 청년들은 일명 조국 사태처럼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것에 분노하고, 삶에서 자율성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청년 세대들의 가치관·의식들을 반영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청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환기시키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공정성 인식, 성별 갈등에 대한 인식, 대인 신뢰도, 결혼에 대한 태도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청년의 가치관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과 세대 간, 세대 내 갈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나아가 청년층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관계·참여' 영역은 청년이 원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정치 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청년의 모습과 관련된 지표들을 포함한다. 청년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참여에 있어서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청년정책 경쟁이 나타난 것처럼, 청년들의 사회 참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청년층 또한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영역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여가' 영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여가는 개인적인 시간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보내는 자유로운 활동일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자율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여가 활동의 횟수나 양보다는 본인의 만족도를 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여가 영역에서는 여가 활동에 대한 횟수보다는 여가 시간, 주된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동반자 유형 등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기를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 활동,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생소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여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 차원에서는 '안전'과 '거주 환경'으로 나누어 청년층 삶에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안전'과 '주거환경' 영역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이동의 자율성을 느끼며 생활하는 청년들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안전 영역에서는 물리적 안전 외에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사이버 안전, 데이트 폭력 등 청년층과 관련이 깊은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주거환경 영역에서는 주택임대료 비율, 주택 외 거처 비율 등 주거 빈곤과 관련한 청년의 어려움과 문화(편의) 시설 접근 용이성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다루고 있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영역의 목표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청년'이다. 주관적 웰빙 영역은 다른 주제영역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개별

주제영역이 아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다루고 있어 과거 별도의 주제영역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관적 웰빙과 주관적인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측정방식 또한 체계화되어 다른 주제영역들과 구분되는 독립된 영역으로 제시된다. 이 영역은 청년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정책당국 및 전문가가 규정하는 기준이 아닌 청년 자신이 판단하는 삶의 질의 주관적인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청년 FGI 및 지표 중요도 평가에서 청년들은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지표들이 삶의 질을 매우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11개 영역과 기존의 타 지표체계들을 비교해보면 <표 4-1>과 같다. 청년층 삶의 질 영역은 국민 삶의 질 지표와 OECD 웰빙과 비교했을 때, 의식·가치관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환경 영역은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표 4-1>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와 타 지표체계 비교

국민 삶의 질	한국의 사회지표	청년 다차원 빈곤	OECD Wellbing	OECD Youth Wellbing	청년층 삶의 질 프레임워크
-	인구	-	-	-	배경지표
소득소비자산	소득과 소비	경제력	소득 및 자산	-	경제적 여건
교육	교육	-	교육역량	교육과 역량	교육
고용·임금	노동	고용	일과 일자리 질	고용	일자리
건강	건강	건강 안정성	건강	건강	건강
주거	주거와 교통	주거	주거	-	거주 환경
-	-	-	-	-	의식·가치관
시민참여	사회통합	사회문화적 자본	사회관계	권한 부여	관계·참여
	-		시민참여	시민 참여	
여가	문화와 여가	-	일과 여가 균형	-	여가
가족공동체	-	-	-	-	-
안전	-	-	안전	-	안전
환경	-	-	환경	-	
주관적 웰빙	-	-	-	삶에 대한 평가	주관적 웰빙

제2절 지표체계 구성

지표체계는 프레임워크에 따른 10개 영역과 배경지표를 추가하여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측정목표에 따른 지표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프레임워크에서 세부내용을 확장시킨 것으로 실제 지표목록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가 프레임워크 구축임으로 통계자료의 검토과정을 통한 지표의 산출가능 여부에 따라 최종 지표체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표체계(안)을 구성한 이후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가능한 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계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서 도출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다만 통계자료 확인 전에 이러한 지표체계를 작성하는 것의 장점은 첫째, 해당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보여주기 어떤 지표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필요한 지표임에도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가 없어 지표로 구성할 수 없다면 이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규 지표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층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자료가 무엇인지, 현재 어떤 통계자료가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전체 11개 영역과 개별 지표들은 <표 4-2>에 에 제시되어 있다.

‘배경지표’ 영역에서 필요한 지표는 청년 인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배경지표로써 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청년 가구 및 세대 구성, 대학취학률, 청년 관련 정책 예산 규모 등이다. 다만, 청년 예산 관련 부문은 지표 관리로서의 적절성 등 추후 연구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여건’ 영역은 청년 연간 소득(개인), 청년 부채, 청년 자산,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경제적 의존도(사적이전소득 비율), 소비생활만족도 7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교육’ 영역은 학교 졸업 후 취업 소요기간, 대학 교육의 취업 도움 정도, 직업 훈련 경험(만족도) 여부, 대학졸업자 취업률, 취업준비생비율 5개 세부지표이다. ‘일자리’ 영역은 고용률, 저임금 근로자비율, 임금 격차(사업체규모/성별/고용형태별), 일자리 만족도, 업무 수행 자율성 정도, 일-여가 균형 정도 6개 지표로 구성된다. ‘건강’ 영역은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율, 반아웃 경험률,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 신체활동실천율(중등도 이상), 흡연률 등 7개 지표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의식·가치관’ 영역은 삶의 자율성, 공정성 인식, 소득불평등 인식, 성별 갈등에 대한 인식, 대인 신뢰도, 결혼에 대한 태도 6개 세부 지표를 포함한다. ‘관계·참여’ 영역에서는 대인관계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선거투표율, 정치 활동 효능감, 사회적 교류 정도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여가’ 영역은 여가시간, 주된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동반자 유형, 여가 활동 비용 충분도, 여가 활동 시 스마트기기 활용 정도, 여가 활동 만족도, 희망 여가 활동 유형 7개 지표를 포함한다.

환경적 차원에서 ‘안전’ 영역은 야간 보행 안전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강력 범죄 피해율, 데이트 폭력 발생(신고) 건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거주 환경’ 영역은 주택 임대료 비율, 1인당 주거 면적, 주택 외 거처 비율, 주거 환경 만족도, 통근(통학) 시간, 문화(편의) 시설 접근 용이성 6개 지표를 포괄한다. 주관적 웰빙 영역은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3가지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표 4-2> 청년층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

차원	영역	지표(62)	
개인적 차원	경제적 여건 (7)	❶청년 연간 소득(개인)	❷청년 부채
		❸청년 자산	❹상대적 빈곤율
		❺지니계수	❻경제적 의존도(사적이전소득 비율)
		❼소비생활만족도	
	교육 (5)	❶학교 졸업 후 취업 소요기간	❷대학 교육의 취업 도움 정도
		❸직업 훈련 경험(만족도) 여부	❹대학졸업자 취업률
		❺취업준비생비율	
	일자리 (6)	❶고용률	❷저임금 근로자비율
		❸임금 격차 (사업체규모/성별/고용형태별)	❹일자리 만족도
		❺업무 수행 자율성 정도	❻일-여가 균형 정도
	건강 (7)	❶주관적 건강상태	❷비만율
		❸burn-out 경험률	❹우울감 경험률
		❺자살률	❻신체활동실천율(중등도 이상)
		❼흡연율	
사회적 차원	의식/가치관 (6)	❶삶의 자율성	❷공정성 인식
		❸소득불평등 인식	❹성별 갈등에 대한 인식
		❺대인 신뢰도	❻결혼에 대한 태도
	관계/참여 (5)	❶대인관계만족도	❷사회적 고립도
		❸선거투표율	❹정치 활동 효능감
		❺사회적 교류 정도	
	여가 (7)	❶여가 시간	❷주된 여가 활동
		❸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동반자 유형	❹여가 활동 비용 충분도
		❺여가 활동 시 스마트기기 활용 정도	❻여가 활동 만족도
		❼희망 여가 활동 유형	
환경적 차원	안전 (6)	❶야간 보행 안전도	❷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❸강력 범죄 피해율	❹데이트 폭력 발생(신고) 건수
		❺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	❻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거주 환경 (6)	❶주택임대료 비율	❷1인당 주거 면적
		❸주택 외 거처 비율	❹주거 환경 만족도
		❺통근(통학) 시간	❻문화(편의)시설 접근 용이성
주관적 웰빙 (3)		❶삶의 만족도(4.8)	❷긍정정서(4.4)
		❸부정정서(4.4)	
배경지표(4)		❶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❷청년 가구 및 세대 구성
		❸대학취학률	❹청년 관련 정책 예산 규모

제3절 지표체계 구축 방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축된 지표체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청년 관련 승인통계들의 세부항목들을 모두 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지표화하는 과정은 후속 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 관련 통계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의 통계 자료와 청년층을 포괄하는 전체 인구(가구) 통계로 구분된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연령이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지, 본 연구의 연령 기준인「청년기본법」상의 만 19~34세로 한정하여도 조사결과의 대표성이 있는지를 통해서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통계자료를 지표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몇 가지 기준으로는 가용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공식통계인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지(타당성),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지, 자료의 생산주기가 적절한지이다. 예를 들어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경우 청년층 삶을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나 2년 주기로 조사되어 조사내용과 함께 다른 조사와의 조사 주기 정합성 문제 등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지, 청년층을 학생(취업준비 중)과 취업자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세부 그룹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지를 통해서 통계자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지표 작성과정에서 고려해야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최종 청년층 삶의 질 지표가 어떠한 형태로 작성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보도자료 형식으로 매년 작성할 것인지, 지표 보고서 형태의 보고서로 발간될 것인지, 그렇다면 보고서 작성주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지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과 같이 매년 보도자료 형식으로 작성된다고 할 경우 지표수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청년 관련 대표적인 조사들의 주기가 격년이나 2년 주기임으로 매년 작성할 수 있는 지표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영역은 유지하되 자료의 산출시점을 고려하여 매년 구성되는 지표가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표보고서 형태로 작성될 경우에는 지표 수에서의 제약은 감소하나 작성주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조사자료의 주기를 고려하여 격년 또는 지표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지표보고서는 격년 주기로 발간 또는 업데이트하고,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간략한 요약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매년 작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결과작성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작성담당 실사과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지표를 구축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워크의 구축은 청년층 삶의 질 전반을 보여주는 이론적인 틀에 해당하므로, 결과보고서의 작성방법과는 관련 없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 청년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지표체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관련 부처 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연구이다. 청년의 경우 20~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별도의 취약 인구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기를 거치면서 청년 실업률, 청년 빈곤 등 청년 문제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 청년들은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에 내몰리면서 극심한 물질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청년의 어려움은 고용에서 비롯되어 소득,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여가 등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청년의 어려움이 이후 생애주기 이행에서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청년기본법」제정을 계기로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시행과 2022년 1차 청년 삶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년층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다양한 기반이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시행과 지표들이 일회성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층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일 것이다.

현재 청년층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별 연구들로 청년층 삶의 질 현황을 보여주는 청년층 삶의 질 지표가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청년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최근 청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청년들은 취업 여부에 따라, 독립 여부에 따라 그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들은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시기이지만 고용 시장으로의 진입 준비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존재이다. 청년들은 고용 시장 진입이라는 필수적 이행 단계 속에 있으며, 세대 간,

그리고 청년 세대 간에서도 이질적인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여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도권 직장인, 비수도권 직장인 그리고 성별, 종사상지위별 등 청년 계층은 다른 세대보다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청년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년층의 삶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다채로운 사회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 받으며, 일과 여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적 차원에서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는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여건', '교육', '일자리', '건강'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식/가치관', '관계/참여', '여가'를, 환경적 차원에서는 '안전'과 '거주 환경'으로 세부 영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청년층 삶의 질의 주관적인 부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주관적 웰빙'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청년과 청년 가구의 인구분포 현황을 보여주는 '배경지표' 영역을 포함하여 모두 11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작성된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가 기존 사례들과 다른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FGI를 통해 보다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표를 작성하도록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지표보다는 현재 청년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영역구성에 있어서 최근의 청년 관련 이슈인 기회의 공정 등 의식/가치관 영역을 별도로 구성하여 청년층 삶의 질 지표가 가지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배경 지표에 청년정책 및 예산 부문을 포함하여 청년정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는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청년 통계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지표체계를 작성하는 과정은 후속 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과제로써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 개별지표가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개별 과제로 진행하는 것의 장점은 현재 통계자료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론적인 틀에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연구 안에서 진행된다면 프레임워크보다 실제 통계자료로 작성된 최종 지표체계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층 삶의 질 지표체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 통계 분석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작성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지표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청년과 전문가들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표의 시의성과 정합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청년층 삶의 질 연구 결과와 청년FGI, 전문가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프레임워크 구축을 수행하였다. 다만, 청년의 연령 기준을 만19~만34로 한정한 점, 결혼·출산 등 원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의 이행의 관점에서의 분석이 본 연구에서 제외된 점 등은 한계이다. 또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 성과의 시사점 고찰과 프레임워크 영역의 구성의 정합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21~’25). 2020.12.
국무조정실.(2022). ‘청년 삶의 질 실태 조사’실시 관련 보도. 2022.07.
통계청. (2022).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보도자료. 2022.12.
통계청. (2022).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2.12.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21~’25). 2020.12.

김승연 외. (202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김유빈 외. (2019). **청년 삶의 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금선. (2019). “청년의 부채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출생코호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143~149.
변금선, 김기헌.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85.
변금선, 이혜림. (2021). **서울시 다차원적 빈곤 실태**, 서울연구원.
변준석 외. (2019). **지표작성방법론**, 통계개발원.
서병수. (201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사회복지정책**, 28(1): 199-232.
오세일 외. (2019). “청년세대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27차 2호.
오세일. (2015). “행복과 영성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 청년세대 연구를 향한 시론.” **인문사회21**, 6권 2호, 463-489.
유민상 외.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민상 외. (202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철선 외. (2020).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외. (2021). **청년 삶의 질 추진방향 수립연구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최광은 외. (2021). **청년의 주관적 사회지위가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연구대학교, 서울연구원.
한성민 외. (2016).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2권 제1호: 60-85.
한준. (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67-94.

Hanafin, S., & Brooks, A, m. (2005).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ing indicators in Ireland Stationery Office*.
John Lisney. (2021). “Youth Progress Report2021”, European Youth Forum 2021.

ILO. (2020).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

John Lisney. (2021). “Youth Progress Report2021”, European Youth Forum 2021.

Kakwani, N., & Siber,J. (2008). *Many dimentions of poverty*, Springer.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ing*, OECD, Publishing.

Ritu Sharma. (2017). *Global Youth Wellbing Index*,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Rothstein, B. (2010). “Happiness and the Welfare State”, *Social Research,* 77(2),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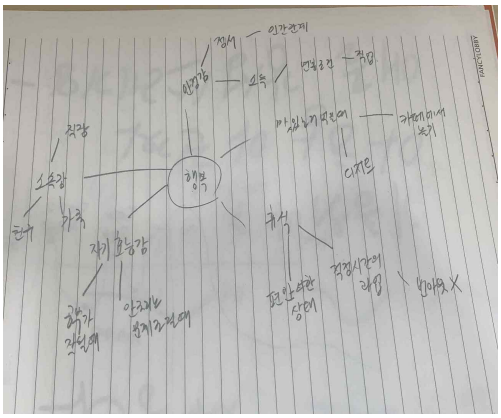
Taylor, C. (2007). *A Secular Ag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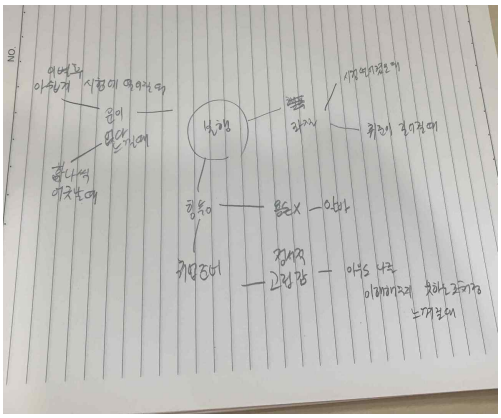
UN. (2021). *Youth2030: Progress Report2021*,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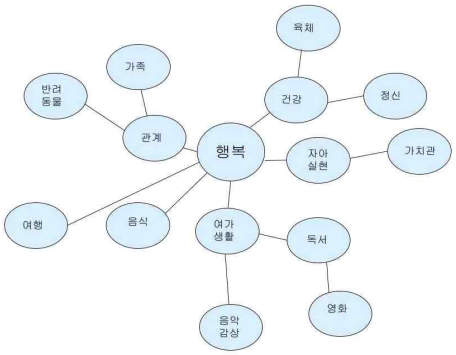
UNDP. (2020). *Charting pathway out of multidimeantional poverty*, UN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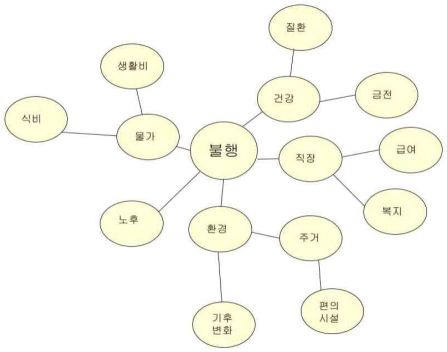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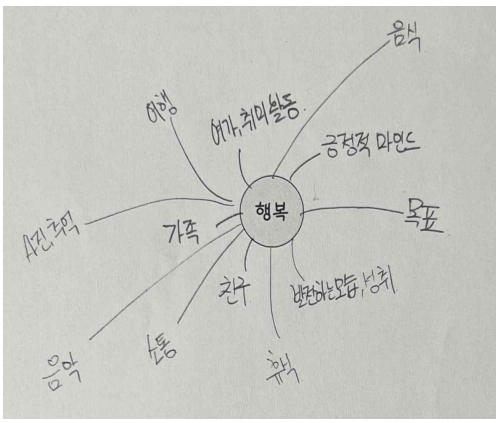
1. 청년 FGI 면담조사 마인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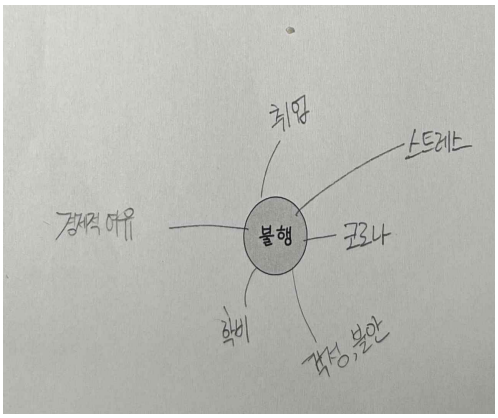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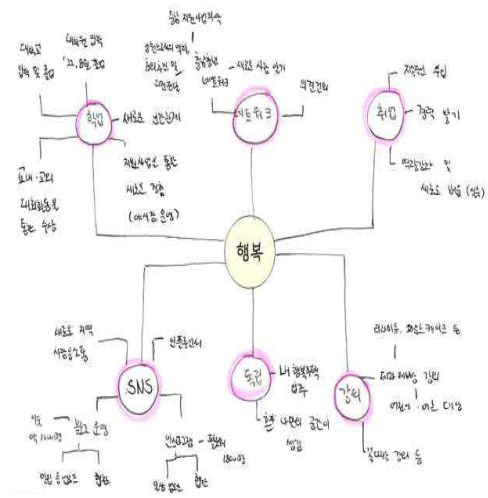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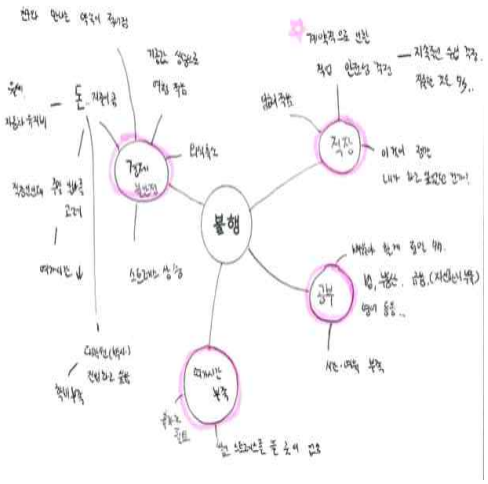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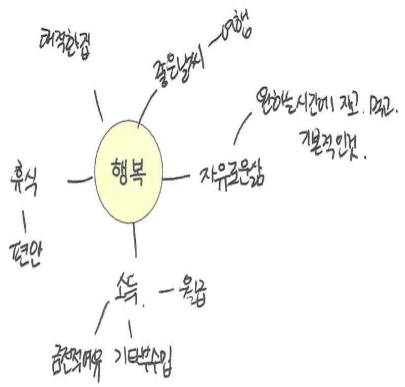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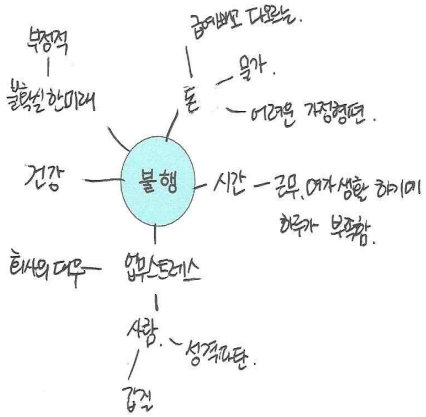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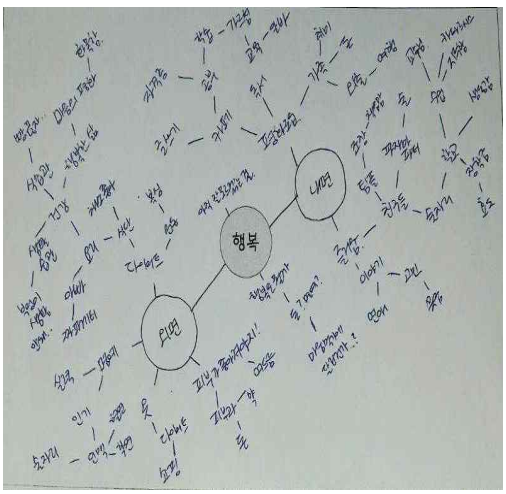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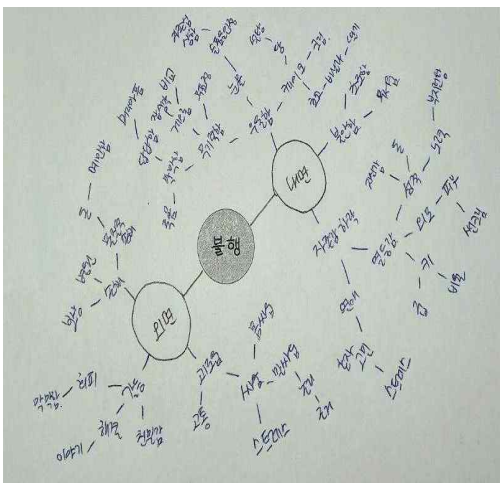

행복
SNS
독립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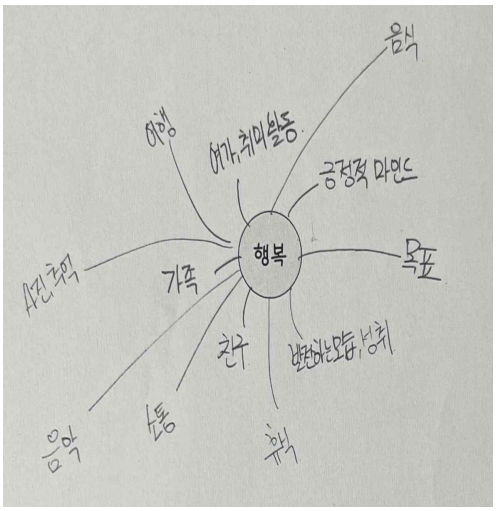

불행
직장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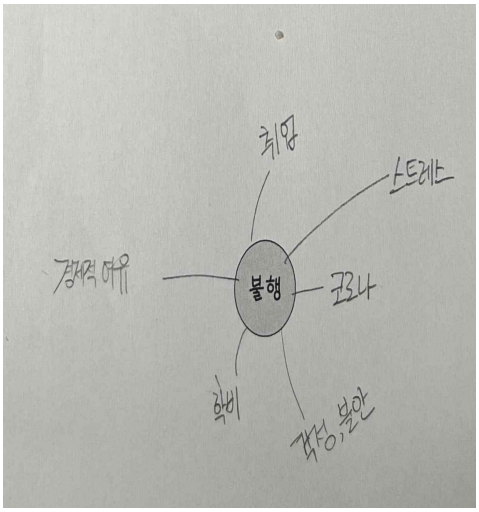

행복
휴식
편안
소득
월급
금전적여유
기타부수입
자유로운삶


불행
부정적
불확실한미래
건강
시간
업무스트레스
사람
갑질


행복
내면
외면


불행
내면
외면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좋아하는 음악

가끔 나가서 뛰는 바람

가끔 상상하는 내가 원하는 미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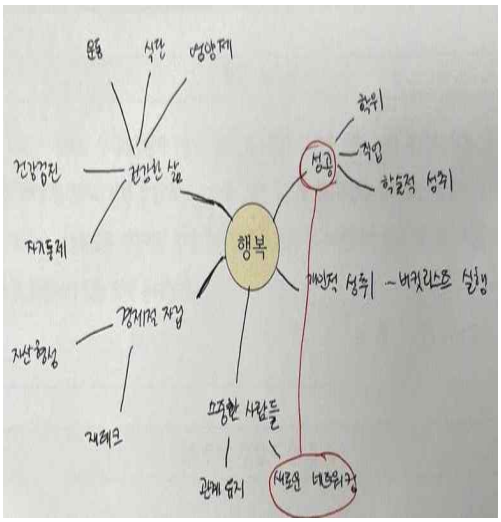
취업 준비가 잘 안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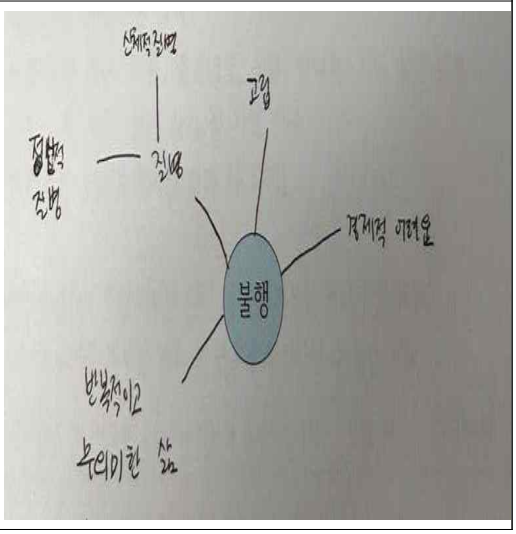
기회가 어릴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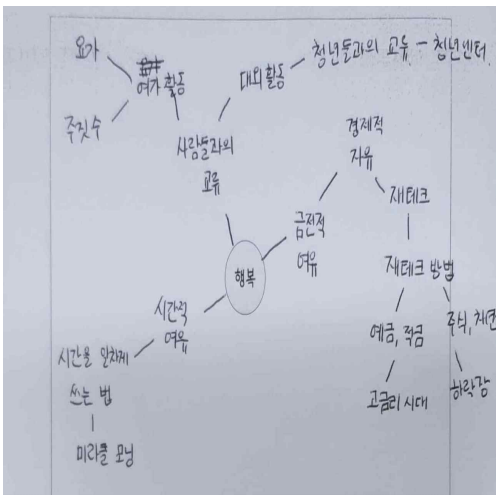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 격차 실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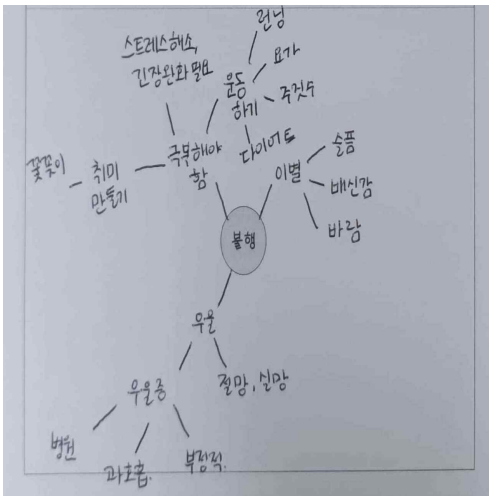
돈을 벌었는데도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지못하는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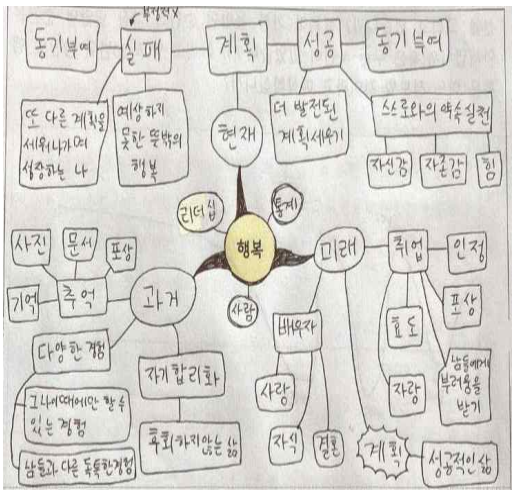
불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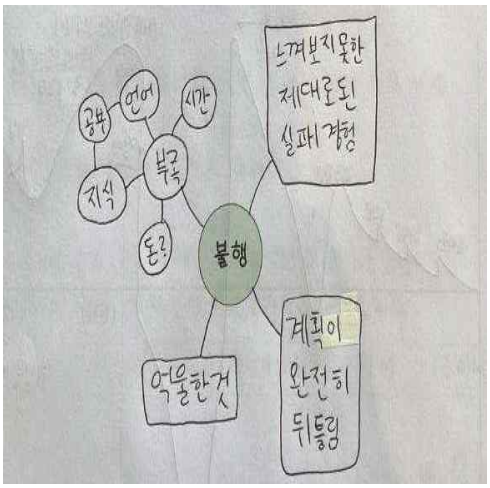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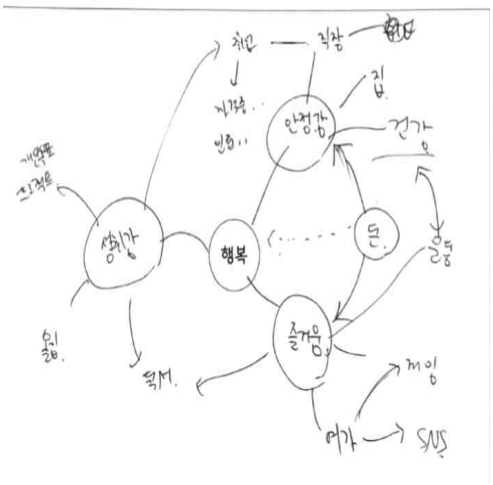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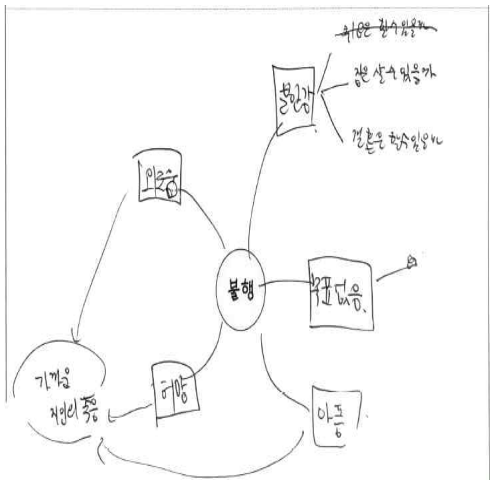

요가
여가 활동
주짓수
대외 활동
청년들과의 교류 - 청년센터
사람들과의 교류
경제적 자유
재테크
금전적 여유
행복
재테크 방법
시간적 여유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시간을 알차게 쓰는 법
고금리 시대
하락장
미리를 모닝


런닝
스트레스해소, 긴장완화 필요
요가
운동하기
주짓수
꽃꽂이
취미 만들기
극복해야 함
다이어트
이별
슬픔
배신감
바람
불행
우울
우울증
절망, 실망
병원
과호흡
부정적


동기부여
실패
계획
성공
동기부여
또 다른 계획을 세워나가며 성장하는 나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행복
현재
더 발전된 계획세우기
스스로와의 약속실천
자신감
자존감
힘
리더십
통계
행복
사진
문서
포상
기억
추억
과거
사람
미래
취업
인정
포상
배우자
효도
다양한 경험
자기합리화
사랑
자랑
그 나이때에만 할 수 있는 경험
후회하지않는 삶
자식
결혼
계획
성공적인 삶
남들과 다른 독특한경험


느껴보지 못한 제대로된 실패 경험
공부
언어
시간
지식
부족
돈?
불행
억울한것
계획이 완전히 뒤틀림


치료
직장
집
안정감
건강
성취감
행복
돈
운동
즐거움
독서
게임
여가
SNS


불안감
불행
무표정
허망
아픔

2. 영역별 전문가 세부 의견

1) 영역 구성 관련

영역	의견
일자리·여가	▹ 현재 일자리/여가 내에서 여가에 대한 항목은 10가지 중 2가지 밖에 없어 여가가 일에 종속된 부분으로 인식됨 ▹ 여가를 분리하여 주관적 웰빙에 포함하는 방안, 현재 주관적 웰빙 항목이 빈약하여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 '여가'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서와 같이 일과 삶, 일과 생활, 일과 가정, 일과 여가의 균형, 즉 '일'과 상대적 위치에 있는 개념이며,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도 높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 차원 및 일자리/여가'로 위치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여가'의 만족도 요인으로는 1)제도적 기반(휴직, 휴가 등) 2)경제적 여건(소득) 3) 시간적 여건(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야 함
	▹ 여가가 개인적 요인에 배치되는 것이 합당, 여가를 일-생활 양립의 맥락에서 일과 함께 묶은 것으로 판단되는 데, 학술적으로 논쟁의 여지는 있겠으나, 해당 통계가 보편적 기준하에 구성된다는 점을 감았했을 때, 일-생활 양립 측면에서 여가를 해당 영역에 배치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는 판단 ▹ 여가는 일 외에도 개인적 의식/가치관과도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개인적 요인에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용이, 다만, 여가를 개인적 요인에 일과 분리시켜 6번으로 배치하는 것도 고려
	▹ 여가와 근로는 주어진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개인의 선택에 해당하나, 타 지표체계에서 여가는 사회적 관계 속에 포함하고 있음. 여가는 개인적인 수준보다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측면을 포함하므로 여가를 사회적 관계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
	▹ 일자리와 여가는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일 외의 시간에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해당될 수 있지만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 '일자리'에 포섭되지 않지만 여가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 여가를 일을 수행하기 위한 휴식으로 볼 것인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과 여가를 구분해서 사회적 관계에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일자리/여가는 영역 구성이 매끄럽지 않음. 분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여가는 일생활 균형 측면에서 시민참여 쪽이 더 관련 있어 보임
	▹ 청년층 여가 향유 방식의 변화에 따라 개인적 요인으로 포함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자리와는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봄. 6. 여가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함

영역	의견
의식·가치관	▹ 의식/가치관은 개인적 영역이면서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부분임. 전적으로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임. 관계/참여에서 묻는 영역의 일부도 개인적인 요인이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묻는 질문이 관계/참여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가치관을 사회적 관계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 단 사회적 관계라는 현재의 네이밍이 적절한지는 검토 필요
	▹ 기본적으로 '의식/가치관'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영향을 받고 결정되므로, '사회적 관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어떤 의식과 가치관을 말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측면/활동과 관련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의식/가치관이 반드시 사회적 관계와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사회적 신뢰나 평등의식은 개인적 영역으로만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
	▹ 의식과 가치관은 별도로 두어야 하며 사회적 관계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 기본적으로 웰빙 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증가와 감소에 따라 웰빙 변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제안된 의식/가치관 영역 지표들은 사회지표로는 흥미로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감에 따라 웰빙을 파악할 수 없어 웰빙 지표로 보기 어려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지표로 구성되어야 함
	▹ 의식/가치관은 최근 청년층 이슈(젠더 갈등, 정치성향, 소수자에 대한 인식, 국가역할 등)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바, 별도 영역 구성이 필요하며, 개인적 요인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청년층의 경우, 기성세대와 다른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생애경험의 결과임
기타	▹ 주관적 웰빙에서 묻는 질문이 문항이 적어 일부 내용 보완 필요
	▹ '청년층 삶의 질 프레임 워크'의 모든 지표는 '비교의 기준' 설정도 중요함 1) 청년구분 : 연령/지역구분/시기구분(코로나19 이전/이후 등)
	▹ 국민 삶의 질, OECD wellbeing 등을 고려해 수정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 관계'가 다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조건에 비해 인간관계를 연상하는 용어라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음 ▹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측면/사회적 차원/사회적 활동/사회적 인식' 등으로 고치고 난다면, 여기에 국민의 삶의 질 지표에서와 같이 여가 포함 가능 ▹ 가치관/인식도 사회적 차원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음. 혹은 모두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차원으로 통일하는 방법

영역	의견
기타	▹ 웰빙 측정 프레임워크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차원'이 어떠한 이론적 기반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불분명함. 현재는 차원이 오히려 영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안전은 환경적 조건이면서도 매우 주관적인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한국의 범죄율과 여성의 안전감의 괴리 등. 단순히 환경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주거가 환경적 여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의도가 불분명해 보임 ▹ 현재 가용한 지표로만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경우 포괄적인 구성이 어려울 수 있음. 이론적 논의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지표를 구성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주관적 웰빙은 개인적 요인으로 넣어도 무방할 수도 있겠음
	▹ 객관적인 불평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 고려 ▹ 해당 지표들이 영역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2) 지표 중요도 평가

영역	의견
경제적 여건	▹ 대출 후 원리금 상환 시 연체 경험을 추가 / 자산 관련 지표
	▹ 소득은 현금흐름(Flow) 성격이 강함. 자산(stock)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생활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소유, 주식 및 가상화폐의 투자 여부도 고려
	▹ 독립적 자산만이 아니라 부채 및 부모 이전소득 또한 주요 가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빈곤율 측정이 갖는 실효성과 의미가 크지 않음
	▹ 청년은 단독가구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❷, ❹, ❺ 등의 측정이 19-34의 사람만의 특징을 잘 포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소비는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바, 핵심생활비 또는 필수지출 등이 정의되지 않는 경우, 지표로써의 의의가 적을 것으로 봄 ▹ 청년가구 재무건전성(자산대비 부채비율): 청년가구 순자산 점유율. 최근 자산 불평등 심화로 자산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청년 개인이 속한 가구 /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등 기준 설정 필요 ▹ 자산에 관한 직접 지표 추가: 순자산, 빈곤 등). ▹ 청년 집단 내 불평등 비교 지표: 전체가구와 청년가구 소득지니계수, 순자산지니계수, 분위배율 등 ▹ 객관적 지표 추가: 부채 관련 청년 채무조정자 수, 신용유의자 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지표 검토

영역	의견
교육	▹ 고용시장 진입을 위한 도구로만 교육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음 ▹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시각/시야가 넓어진다거나 풍요로워진다는 등의 경험 지표의 추가 고려 ▹ 교육의 질(대학 교육의 질) - 예상했던 것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대학) 교육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전월세 계약 체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나 교육과정에서 이를 배우지 않기 때문)
	▹ '학교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이 너무 많고 다양하여 지표로서 실효성 부족 ▹ 학교 교육의 취업/창업/진로설정/사회적관계망 등 분야별 도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함 ▹ 직업훈련경험(만족도)은 재학시기/졸업 이후로 구분해야 함. 교육은 목표(성장/입직)으로 크게 나누어서 접근해야 하며, 시기(재학/졸업 이후)로 구분이 필요하며, 사회 진입하는 과정의 단계별(진로설정단계/구직단계/이직단계)로 고려해야 함
	▹ 직업 훈련 경험 여부에서 직업 훈련의 종류, 미참여 이유 등 조사 필요 ▹ 만약 직업 훈련을 받게 된다면 훈련 주체(ex. 학교, 정부, 사설학원 등)가 어디가 되길 바라는지도 물어본다면 향후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 직업 훈련 외에 직업 교육 여부 추가 ▹ 또한 공적 교육시스템(직업/평생교육 차원)에 대한 질문 추가
	▹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기회에 관한 의견 등을 물어볼 필요가 있음 ▹ 진로성숙도와 같은 척도 문항 추가 ▹ 취업 준비 활동에 관한 항목 추가
	▹ 교육/역량의 접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청년 니트 비율추가 ▹ 학교 졸업 후 취업 소요기간의 지표는 school to work transition의 상황을 보여주므로 교육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직관적일 것임
	▹ 직업과 전공이 일치하는 것이 현재의 청년층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봄 ▹ 학교생활만족도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중요하지만, 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를 묻는 것은 애매함. 차라리 이행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기회,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교육 부분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한 지표, 교육 중단 경험률, 고등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 비율

영역	의견
일자리·여가	▹ 취업소요기간보다는 취업가능성 여부 고려 ▹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부당한 대우 지표
	▹ 5번 일자리만족도의 하위 구성지표로 임금/근로시간/조직문화로 구분 필요. 기본적으로 취업/창업(자영업 등) 구분 필요. 또한, 근로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근로 형태:, 정규직/비정규직, 상기근로자/단기일자리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등)
	▹ 초과근로시간을 연령별로 보는 맥락이 무엇인지 불명확 ▹ 직종/성별/고용형태별 등 오히려 6번의 세부항목이 더 설명력을 가짐
	▹ 핵심고용지표인 실업률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니트 비율을 비롯해 구직단념자 비율 등 고용보조지표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❸ 저임금 근로자비율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지표로 지속 가능한지 의문임 ▹ 고용의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졸업 전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 명확화 필요 ▹ 여가는 정의가 매우 큰 개념으로 여가시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 혹은 여가시간 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로 개념을 조정
	▹ 상태와 관련해 청년 니트 비율을 추가 ▹ 일자리 관련하여 고용불안정을 구성하는 다면적인 요소(고용형태-고용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의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비임금근로자 비율,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비율 등), 임금수준, 사회보호수준-사회보험 가입률, 일가족 양립제도 이용률 등) ▹ 청년 일자리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일자리의 고용안정 측면의 지표가 누락 ▹ 일자리 안전과 관련한 산재 청년 비율 등 추가

영역	의견
의식·가치관	▹ 자산격차에 대한 인식, 성평등 인식 또는 차별 ▹ ❻기후변화불안도 영역은 불안도가 민감도를 의미하는지 인지도를 묻는 것인지 불명확,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 정도로 바꾸는 것 고려
	▹ 공정성 인식은 Equality(평등)과 Equity(공평, 형평성) 그리고 Justice(정의, 분배평등)을 구별해야 함. 20대/30대, 남/여, 불평등도 세분화
	▹ 만약 인식/가치관 지표가 위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면, 해당 항목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측면'에 배치하는 것이 더 타당
	▹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성평등 인식, 노인에 대한(타 세대/인구집단에 대한 인식) 인식
	▹ 결혼과 더불어서 가족관 전반에 대한 내용도 추가 ▹ 국가관, 인생관에 관한 부분
	▹ 가치관은 사회지표로서는 의의가 있으나, 가치관 지표의 증감으로 웰빙의 증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체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정성은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을 묻고 있음. 지표에 포함하려는 공정성 인식의 내용에 의문 ▹ 사회에 대한 신뢰집단 간 갈등 인식. 인구변화에 대한 위협 인식 추가 ▹ 성평등에 관한 인식 문항/ 자녀-부모 부양에 관한 인식 ▹ 직업가치관

영역	의견
건강	▹ 6. 관계/참여 영역에서 2. 사회적 고립도를 건강 영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 ▹ 정기적 건강검진 추가
	▹ 흡연, 음주와 약물 복용, 식습관(아침식사 등) ▹ 건강검진을 비롯한 병원 이용도
	▹ ❸ 번아웃 경험률이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전체 청년 인구의 경험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타당성이 달라질 것임 ▹ 흡연/음주율 등 필요 (substance abuse 관점)
	▹ 정신건강 미충족 의료 경험(청년 삶 실태조사 문항 활용)
	▹ 행정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 필요(청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환자 수, 고독사 청년 비율 등) ▹ 신체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수 비율 등

영역	의견
사회적 관계	▹ ❶ 가족관계 만족도는, 현재 1인가구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원가족을 의미하는 것인지 새로 형성한 가구(예를 들면 신혼부부)를 의미하는지 불분명 ▹ ❷ 지역청년은 수도권 이외 거주 청년인지, 정주 의식은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하겠다는 의미인지 의도 불분명, 워딩 수정이 필요, 지역에 대한 애착, 소속감 표현 고려 ▹ ❸ 사회적 고립도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 정도로 수정 고려 ▹ ❽ 기관신뢰도는 현재 다니는 일자리, 회사에 대한 소속감인지 일반적인 정부 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인지 불분명, 현재 일자리에 대한 소속감이라면 3. 일자리/여가 부분으로 이동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 6. 관계/참여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물음으로 변경 고려
	▹ 7번 기관 신뢰도는 특정기관의 개별적인 경험에 크게 좌우됨 ▹ 전반적으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항목을 더 살펴보고 잘 활용할 필요
	▹ 온/오프라인 모임을 모두 고려 ▹ 선거투표도 정치활동 세부항목으로 분류
	▹ 정치활동 외 사회활동 참여율을 확인 ▹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SNS 또는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시민단체 후원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정당이나 단체 가입도 추가 검토
	▹ ❷지역청년의 정주 의식은 가치관에 가까우며, 정주 의식의 증감에 따라 웰빙의 증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정주 의식 증감을 해석하는 것은 사회적 시각 ▹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소속감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청년은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교류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 ▹ 자발적 배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청년 삶 실태조사 문항에 포함되어 있음)
	▹ 지역청년 정주 의식은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 ▹ 관계의 범주가 가족-지역공동체-국가-사회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주 의식보다 직접적인 지역사회 공동체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 추가 ▹ 정주 의식은 현재 한국사회 지역 간 기회구조 격차를 고려할 때 다른 지표와 일관된 내용을 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음

영역	의견
안전	▹주거지 침입 위험 ▹보이스 피싱 피해 두려움 ▹묻지마 폭행과 같은 비상식적 무차별적 예기치 못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마약 경험, 중독 사례 등 ▹ 1인 여성가구의 경우, 주거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 ▹가정폭력 ▹안전에 대해 공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지 질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야행 보행 안전도 외) ▹❹ 전반적 폭력 경험 비율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정폭력/데이터 폭력 등이 모두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안전 영역은 객관적/주관적 지표에 대한 균형이 필요해 보임

영역	의견
거주 환경	▹1인가구 주택 이외 거처 비율은 1인 청년만 묻는 게 적정한지 의문 ▹반지하 등 재해 위험 거주 환경, 향후 자가마련 가능성 ▹임대차 불안이나 가격 상승 불안, 전세사기 위험, 임대차 계약 유지과정에서의 차별(임대인이나 중개인으로부터) ▹ PIR (Price Income Ratio) 및 RIR (Rent to Income Ratio) ▹주거 형태와 주거비 부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❶ 소득대비 주택 임대표 비율 ❷1인당 주거 면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 ❸1인 가구 주택 외 거처 비율은 '1인 가구의 불안정 주거 거주 비율' 등의 개념인지 확인 필요 ▹통근 시간인지, 통근시간 만족도인지 불명확. 만족도가 좀 더 적절해 보임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추가 제안 ▹1인가구 주택외 거처 비율에서 1인가구로 한정한 이유 의문 ▹고시원 지하, 반지하 거주 비율로 구체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

영역	의견
주관적 웰빙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미래 사회 및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도나 진취성 추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다른 부분이어서 행복감 추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 불가함

영역	의견
배경지표	▹청년정책 전달체계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위 '청년센터'의 여/부 및 개수 ▹도시의 지식기반산업의 규모, 대학교육기관 수 등도 고려 필요 ▹청년정책 인지도 추가 ▹청년 관련 정책 예산 규모는 세부 예산을 다 참고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임 ▹사회적 결속 및 재생산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나 정치적으로 민감 ▹청년 가구주 규모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문 ▹1인가구 청년 비율 제안 ▹청년정책 자체가 개념이 명료하지 않아서 지표로 관리되기에는 부적절해 보임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의 경우, 사회지출예산 구분처럼 유형화해 지표 구성을 검토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은 그 범주가 불분명하고 청년 1명만 포함되어도 청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정도여서 처음 지표화할 때 명확한 정의 필요

3. 지표 정의서

영역	지표	개념	지표의 의의	산출방법	자료원
경제적 여건	❶청년 연간 소득	▸ 만 19~34세 청년 개인이 1년 동안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사적이전소득, 기타 소득의 총액	▸ 청년이 속한 가구가 아닌 청년 개인의 경제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사적이전소득+기타 소득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❷청년 부채	▸ 만 19~34세 청년 개인의 현재 총부채액 및 부채 원인별 부채액	▸ 학자금대출, 자산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청년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총부채액=금융기관대출, 전세보증금, 할부구입, 외상 및 기타 모든 부채를 합한 금액 ▸ 원인별 부채액=학자금 부채, 자산투자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액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❸청년 자산	▸ 만 19~34세 청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총액	▸ 청년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아닌 자산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자산총액=금융재산+주식+가상자산+기타 부동산 및 재산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❹상대적 빈곤율	▸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 청년이 속한 가구 또는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빈곤가구의 비중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❺지니계수	▸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이며, 수치는 '0'과 '1' 사이의 비율로 정의	▸ 청년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지니계수 일반 산출 방식(OECD)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❻경제적 의존도 (사적이전소득 비율)	▸ 청년 개인의 연간 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 청년의 경제적 독립성 정도(부모세대로부터 경제적 의존도) 확인 지표	▸ (청년 개인의 사적이전소득/청년 개인의 연간소득)×100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❼소비생활만족	▸ 청년 중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소비라 했을 때 이에 대한 만족도는 청년층 삶의 만족도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소비생활만족 청년의 수/전체 청년 응답자 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영역	지표	개념	지표의 의의	산출방법	자료원
일자리	❶고용률	▸ 만 19~34세 청년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청년 인구의 비율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 (청년 취업자수/전체 청년수)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❷저임금 근로자 비율	▸ 만 19~34세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청년임금근로자의 비율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중 청년의 비율	▸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1안: (저임금근로자수/전체 청년임금근로자수)×100 ▸ 2안: (청년의 수/전체 저임금근로자수)×100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❸임금격차(배율)	▸ 만 19~34세 임금근로자 내에서 사업체규모, 성별,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배율)	▸ 집단 간의 임금 불평등 또는 특정 집단의 경제적 상태 개선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1안: 특정 집단의 임금총액-기준집단 임금총액 ▸ 2안: (특정 집단의 임금총액/기준집단 임금총액)×100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❹일자리 만족도	▸ 만 19~34세의 취업자 중 현재 일자리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근로조건에 대한 주관적 지표로,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 근로조건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일자리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냄	▸ (일자리에 만족하는 취업청년수/전체 청년 응답자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❺업무 수행 자율성 정도	▸ 취업 중인 만 19~34세의 취업자 중 일하는 시간, 장소, 양, 순서, 내용에 대한 자율성을 평가한 4점 척도의 평균값	▸ 업무수행 자율성은 직무만족도, 직무몰입도, 이직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	▸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율성 척도의 평균값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❻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 만 19~34세 취업자 중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일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청년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영역	지표	개념	지표의 의의	산출방법	자료원
건강	❶주관적 건강상태	▸ 만 19~34세 청년 중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의학적 진단 여부와 별개로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많이 활용	▸ (건강하다고 응답한 업청년수/전체 청년 응답자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❷비만율	▸ 만 19~34세 청년 중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 이상인 인구의 비율	▸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부각된 건강 위험요인으로 만성질환 발생의 중요 원인, 서구식 생활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비만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기에 청년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	▸ (BMI 25 이상인 청년수/전체 청년 수)×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❸번아웃(burn-out) 경험률	▸ 청년 중 최근 1년 동안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스스로 소진(번아웃)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취업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취업준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소진 경험자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❹우울감 경험률	▸ 만 19~34세 청년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 우울감 경험률은 정신건강 지표의 하나로, 일상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심각하지만 의학적 진단에 의한 질환으로서의 우울증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	▸ (우울감 경험자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❺자살률	▸ 만 19~34세 청년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	▸ 청년자살률은 점차 감소해왔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자살로 인한 청년사망자수/청년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❻신체활동실천율 (중등도 이상)	▸ 청년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	▸ 건강증진을 실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 (중등도 신체활동자수/전체 응답 청년 수) ×100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❼흡연율	▸ 만 19~34세 청년 중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 성인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고, 이와 함께 청년의 흡연률 역시 감소하고 있어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 (흡연자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역	지표	개념	지표의 의의	산출방법	자료원
의식/가치관	❶삶의 자율성	▸ 만 19~34세 청년 중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청년이 부모 또는 타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자율적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자존감과 매우 밀접히 연관	▸ (자유롭다고 인식하는 청년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자료원 재확인
	❷공정성 인식	▸ 만 19~34세 청년 중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	▸ 자신이 속한 사회를 공정하게 인식할수록 그 사회의 시민 신뢰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공정성은 사회신뢰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	▸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❸소득불평등 인식	▸ 만 19~34세 청년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10점 만점으로 응답한 평균값	▸ 지니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 외에 소득불평등 인식과 같은 주관적 지표는 사회갈등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 소득불평등 인식의 평균값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❹성별 갈등에 대한 인식	▸ 만 19~34세 청년 중 남녀 간의 갈등이 많다 또는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 젠더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성별에 따라 젠더 갈등 인식의 차이가 어떠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❺대인 신뢰도	▸ 만 19~34세 청년 중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대인신뢰는 사회적 유대와 결속, 또는 사회통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청년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❻결혼에 대한 태도	▸ 만 19~34세 청년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청년 내에서의 비혼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년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영역	지표	개념	지표의 의의	산출방법	자료원
관계/참여	❶대인관계만족도	▸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대인관계만족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사회신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표	▸ (만족 한다고 응답한 청년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❷사회적 고립도	▸ 만 19~34세 청년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	▸ 최근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의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❸선거투표율	▸ 20대 전반부터 30대 전반까지 선거인 중 투표한 사람의 비율	▸ 청년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투표일 하락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어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 지표	▸ (투표자수 ÷ 선거인수)×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❹정치 활동 효능감	▸ 만 19~34세 청년이 느끼는 정치활동 효능감(5점 척도, 3개 문항)의 평균값	▸ 정치학에서는 정치참여를 결정하고 정치참여 활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심리적 속성으로서 정치효능감을 중요한 척도로 활용하고 있음	▸ 정치활동 효능감 척도의 평균값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❺사회적 교류정도	▸ 만 19~34세 청년 중 가족/친척 이외에 교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사회적 고립도와 함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 (교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 수 /전체 응답 청년 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영역	지표	개념	지표의 의의	산출방법	자료원
여가	❶여가 시간	▸ 만 19~34세 청년의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	▸ 여가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기초 지표이자 여가활동의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	▸ 요일평균 여가시간 = {(평일 여가시간 × 5일) + (휴일 여가시간 × 2일)}÷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❷주된 여가 활동	▸ 만 19~34세 청년이 평일과 휴일에 참여한 특정한 여가활동 유형의 비율 * 특정 여가활동은 향후 결정: 테니스, 골프, 등산 등 소분류 기준 활동으로 결정	▸ 최근 청년층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가활동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중분류 수준에서의 여가활동이 아닌 특정 여가활동(소분류)을 중심으로 측정하여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	▸ (특정 여가활동 참여자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❸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동반자 유형	▸ 만 19~34세 청년 중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1순위)	▸ 가족, 친구 중심의 여가활동에서 1인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청년의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❹여가 활동 비용 충분도	▸ 여가활동을 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여가비용이 '약간 충분~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	▸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으로 인해 충분한 여가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삶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충분하다고 응답한 청년의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❺여가 활동 시 스마트기기 활용 정도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만 19~34세 청년의 비율	▸ 최근 청년층에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여가활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스마트기기 활용한 여가활동 청년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❻여가 활동 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 여가활동을 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현재 여가활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여가활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여가에 만족하는 청년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❼희망여가활동유형	▸ 만 19~34세 청년이 평일과 휴일에 활동하고자 하는 여가의 유형	▸ 청년들의 여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희망여가활동유형별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영역	지표	개념	지표의 의의	산출방법	자료원
안전	❶야간 보행 안전도 (야간 보행 불안도)	▸ 만 19~34세 청년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측정 방향성을 고려할 때 지표명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은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두렵다고 응답한 청년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❷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만 19~34세 청년 중 자신이 범죄피해를 입을까 '두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범죄피해 두려움과 관련된 하위 항목으로서 가족이나 주변인이 아닌 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감을 측정한 지표	▸ (두렵다고 응답한 청년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❸강력 범죄 피해율	▸ 만 19~34세 청년 중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와 같은 형법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 * 하위 연령별 분석 어려움 존재	▸ 최근 살인, 강도와 같은 형법범죄는 감소세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 (5대 형법범죄 발생건수 ÷ 청년 총인구) ×100,000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❹데이트 폭력/스토킹 검거 건수	▸ 당해 연도의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검거 건수	▸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데이터 폭력 및 스토킹 검거 건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❺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	▸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비교적 안전하지 않음+매우 안전하지 않음)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디지털기기의 사용과 웹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통계청 「사회조사」
	❻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 지난 1년간 사이버 폭력(유형별)을 경험한 만 19~34세 청년의 비율	▸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피해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사이버 폭력 유형별 경험자 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영역	지표	개념	지표의 의의	산출방법	자료원
거주 환경	❶주택임대료 비율	▸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가구 또는 거구주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에서 월평균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 * 자가, 전세인 경우는 제외	▸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이것이 청년의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로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월평균 월세/월평균 생활비)×100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❷1인당 주거 면적	▸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가구 또는 거구주인 가구의 주택사용 면적을 개별 가구원수로 나눈 값의 평균	▸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거 질 측정의 핵심 지표	▸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을 개별 가구원수로 나눈 값의 평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❸주택 외 거처 비율	▸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가구 또는 가구주인 가구가 주택 외 거처에 살고 있는 비율	▸ 청년 주거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주택 외 거처 가구수/일반가구수)×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❹주거 환경 만족도	▸ 만 19~34세 청년 중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주거의 질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되는 주거의 질 지표 중 하나임	▸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년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❺통근(통학)시간	▸ 만 19~34세 청년이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 일(학교)과 거주지와의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 통근(통학) 평균 시간	통계청 「인구총조사」
	❻문화여가시설 접근 용이성	▸ 만 19~34세 청년이 문화여가시설에 접근하기 쉽다고 응답한 비율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여가시설 접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접근하기 쉽다고 응답한 청년수/전체 응답 청년 수)×10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원 확인 필요)

영역	지표	개념	지표의 의의	산출방법	자료원
주관적 웰빙	❶삶의 만족도	▸ 만 19~34세 청년이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	▸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원 확인 필요)
	❷긍정정서	▸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만 19~34세 청년들의 0~10점 척도의 평균 점수	▸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	▸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0~10점 척도의 평균점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원 확인 필요)
	❸부정정서	▸ 조사시점 기준 어제 걱정, 우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만 19~34세 청년들의 0~10점 척도의 평균 점수	▸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	▸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얼마나 걱정,우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0~10점 척도의 평균점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원 확인 필요)
배경 지표	❶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 전체 인구 중 만 19~34세 청년의 수와 비중	▸ 청년인구의 수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청년인구수 ▸ (청년인구수/총인구수)×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❷청년 가구 및 세대 구성	▸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과 세대 구성	▸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청년 가구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청년가구수/총가구수)×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❸대학취학률	▸ 취학적령인구(만 18~21세) 중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각종 대학 과정 등 고등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비율	▸ 교육기회의 충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 (재적학생수/취학적령인구)×10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❹청년 관련 정책 예산 규모	▸ 청년정책의 예산 규모(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정부가 청년정책에 대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주체별 청년정책 예산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Abstract

Study on data gap for SDG indicators and data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Youkang Chin, Youngshil Park

This study aims to review data availability of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draw plans for effectively monitoring and managing the SDG data at the national level. First step is to investigate data gap of the Korean data of the global SDG indicators which is currently disseminated in the UN's global SDG database. The analysis shows that out of total 247 indicators, about 54% of data are being reported. The data is more available in the Goal 3(Health), 7(Energy), and 15 (Land) while less in 5(Gender Equality), 11(Urban), and 14(Ocean). It is also found that 23 government departments are related to the SDGs indicators, which implies that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is required to effectively manage the SDG indicators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way of making the data more available and reducing the data gap in three ways; 1) to provide alternative indicators, 2) to conduct surveys for data collection, and 3) to use innovative technology to produce data such as GIS. It also suggests to establish a government-wide formal consultation mechanism with concerned ministries to jointly managing and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e indicators. The continued partnership between the civial society organizations and academia is also emphasized.

Key terms : SDG, data, monitoring, governance

집필진

- 우한수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남상민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 신인철 (서울시립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2-11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기초 연구

인 쇄	2023년 4월 일
발 행	2023년 4월 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송준혁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2733-41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통계청
통계개발원